

호남학 산책

불가별전

호남 불교의 재발견



불가별전 호남 불교의 재발견

나주 회진(會津), 고대 동아시아 문물교류의 국제 무역항	5
도선(道詵)과 고려 태조 왕건(王建)	13
도선은 당나라에 유학을 하였을까?	24
도선(道詵) 비문(碑文)의 찬술(撰述)과 도선비(道詵碑)의 건립(建立)	42
지눌의 정혜쌍수와 나옹의 동방제일도량 송광사	52
보성 천봉산(天鳳山) 대원사(大原寺)와 자진원오국사(慈眞圓悟國師) 천영(天英)	59
강진 백련사, 고려후기 8국사와 조선후기 8대사의 도량(道場)	67



나주 회진(會津), 고대 동아시아 문물교류의 국제 무역항

회진(會津)은 나주시 다시면 신평리에 있는 마을로 회진임씨(나주임씨) 집성촌으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회진이란 지명이 처음 나타난 시기는 8세기 중엽 통일신라 경덕왕대였다. 경덕왕 16년(757) 주(州)·군(郡)·현(縣)의 명칭과 행정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했던 시기에 비로소 보인다. 회진현(會津縣)이 역사적으로 크게 주목 받기 시작한 시기는 10세기 초반이었다. 그것도 신라말 고려 초 승려의 비에 중국에 유학한 통일신라의 선종 승려들이 귀국하여 국내에 첫 기착한 곳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 남종선의 신라 전래 및 수용에 있어서 첫 길목이 된 곳 중의 하나가 무주(武州)의 회진현(會津縣)이었다.

오늘날에는 영산강 중류의 한적한 농촌인 회진 마을 앞 포구(浦口)가 10세기 초반에는 중국을 비롯한 고대 동아시아의 국제적인 항구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의 시간을 거슬러 새롭게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나주 회진성(羅州 會津城)

회진 지역의 역사유적·유물로 마한시대로 추정되는 나주 북암리 고분군(사적 제 404호)과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보물 제 2125호)에 이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회진성이다. 나주 회진성(羅州 會津城, 전라남도 기념물 제87호, 1986. 2. 17 지정)은 성곽유적으로 지정되어 지방문화재로 관리되고 있다. 소재지는 전남 나주시 다시면 신평리 산8-1번

지 외이고, 면적은 약2.4km(76,034평)이다.

회진성은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회진 마을에서 영산강으로 흘러드는 작은 계곡과, 계곡을 감싸며 쌓은 백제시기의 산성이다. 성벽은 둘레가 2.4km에 달하는데 전남 지역뿐 아니라 우리나라 삼국시대 토성 가운데서도 큰 규모에 해당한다. 계곡 주변의 3면을 둘러싸고 있는 산지는 급경사의 절벽을 깎아내어 성벽을 만들었고, 계곡에는 폭 6m, 높이 6m 정도로 흙을 한층 한층 다져 성벽을 만들었다. 능선의 평탄한 곳을 이용하여 4개의 문을 만들었던 자리와, 남쪽의 낮은 계곡에는 수문(水門)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주 회진성은 백제의 축성기법을 살필 수 있고, 그 이후 통일신라시기 성의 수축 양상도 남아있어 우리나라 성곽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1993년 전남대박물관 임영진 교수팀이 회진성을 발굴 조사하여 그 결과보고서로 『회진토성1』(1995년)을 간행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회진토성의 첫 축조 시기는 6세기 후반 이전으로 추정되며, 영산강 유역 웅관고분 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회진토성은 해발 10-120m의 계곡과 산 능선을 따라 축조된 포곡식 성이다. 규모는 동서 직선거리 약 750m, 남북 직선거리 약 800m, 둘레 약 2,400m이다. 회진토성의 평면형태는 남북이 약간 긴 타원형에 가까운 반달모양을 이루고 있다. 동·서·북쪽 3면은 산 능선의 외면을 깎아 내어 급경사가 되도록 하였다. 계곡 입구에 해당하는 남쪽은 흙을 쌓아 다진



사진 1 나주 회진토성



사진 2 판축성벽(남벽구간)

판측으로 축조하였다. 토성 내부 성토층에서 인화문토기편을 비롯한 통일신라시대의 유물이 출토되고 있어 그 시기에 회진성의 수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다. 남문지 퇴적토에서 출토된 기와는 암·수기와 모두 수지문-격자문-복합문의 순서를 보이고 있어 주로 통일신라에서 고려시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회진현(會津縣)

이곳은 본래 백제의 두혈현(豆飡縣)이었는데, 백제 멸망 뒤 신라 문무왕대에 죽군현(竹軍縣)으로 바뀌어 당나라가 설치한 대방주(帶方州)의 영현(領縣)이 되었다. 757년(경덕왕 16)에 회진현(會津縣)으로 고쳐 금산군(錦山郡; 지금의 나주)에 속하게 되었다. 고려시대인 940년(고려 태조 23) 금산군이 나주로 개칭되었으며, 1018년(현종 9) 나주가 나주목(羅州牧)으로 바뀌었고 회진현은 나주목 관할 하에 회진현으로 고려말기까지 계속되었다가 조선초기에 폐현이 되었다.

회진, 중국 남종선의 기착지(寄着地)

인도에서 성립된 불교가 중국적인 불교로 자리잡게 된 결정적 계기는 선종의 성립에 의해서였다. 중국의 선종은 남인도에서 중국에 건너온 보리달마에 의해 종파불교로 자리 잡게 되었다. 중국 선종의 초조인 보리달마에 이어 제2조인 혜가, 제3조인 승찬, 제4조인 도신, 제5조인 홍인에 이르게 된다. 홍인 이후에 신수계와 혜능계로 양분되어 ‘북수남능(北秀南能)’의 형세를 이루게 된다. 이른바 북종선의 신수와 남종선의 혜능을 가리키는 말이다. 다시 말하자면 중국 선종의 제6조 혜능 계통의

혜능 문하에는 ‘남종정시비론(南宗定是非論)’으로 남종선의 기치를 높이 들면서 제7조임을 자임한 하택신희도 있었으나 그의 사후 곧 법맥이 끊어져 버렸다. 그러나 800년 전후에 중국에서 선종이 크게 일어나게 되면서 초기 선사들에 대해 추선작업과 선맥이 정리되게 된다. 그 결과 남종선이라 불리는 혜능 문하는 남악회양계와 청원행사계로 대별된다.

[illegible]

900년대 초반 중국에 유학하여 선종을 익히고 귀국하는 승려들이 한반도에 첫발을 내딛은 곳 중의 하나가 나주 회진이었다.

8 호남학 산책

휘하에 있으면서 강력한 해군을 거느리고 있었던 것이다. 903년 왕건은 나주호족 다린군의 협조 하에 나주를 장악하였다. 나주 장악 이후에 왕건의 해상세력은 중부해역은 물론 서남해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제해권을 확보하게 되기에 이르렀다.

왕건이 나주를 장악한 903년 이후 나주 회진에 기착한 선승들은 누구였을까? 이들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0세기 초에 나주·무주에 기착한 선승들

승려이름	출발 연대	귀착 연대	기착지	비 고
선각형미	891	905	(나주로 추정)	왕건의 도움
대경여엄	885	909	무주 승평	
법경경유	?	908	무주 회진	
진철이엄	896	911	나주 회진	

10세기 초에 나주·무주에 기착한 선승들은 선각형미·대경여엄·법경경유·진철이엄이었다. 이들 가운데 법경경유와 진철이엄은 회진으로 기착하였다. 선각형미도 왕건의 도움으로 귀국한 승려였기 때문에 회진으로 귀국한 것으로 보여진다.

형미·여엄·경유·이엄은 ‘해동사무외대사(海東四無畏大士)’로 불리우는 선승으로 모두 왕건과 연결된 승려였다. ‘해동사무외대사’란 말은 경유의 비문에 유일하게 나온다. 경유의 탐비인 <장단 오룡사 법경대사보조혜광탐비>에 형미·여엄·이엄은 함께 해동에서 “사무외대사(海東四無畏大士)”라고 한다고 적혀있다.

해동사무외대사는 국내에서 일찍이 선종과 교종사상 모두를 접한 경험을 가졌으며, 선종사상과 교종사상의 교섭문제를 해결하고자 중국에 유학하였다. 이들은 위의 <나말려초 선종법맥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두 운거도옹(雲居道膺)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심인(心印)을 받아왔다. 당시 도옹은 교선융합사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므로 그의 심인을 받아온 사무외대사 역시 교선융합사상경향을 가졌다고 이해된다.

교선융합사상 자체가 후삼국의 혼란을 통합하면서 고려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성립되었고, 실제로 왕건의 통일정책인 호족연합정책과 밀착되었다. 그 중에서도 사무외대사의 교선융합사상경향은 후삼국의 혼란을 종식시키면서 고려 통일국가로 나아가는 왕건의 호족연합정책과 연결되어졌다. 사무외대사가 왕건 외에 대호족인 황주의 황보씨나 충주의 유씨의 호족 세력과 연결된 것이 이를 알려준다.

나주 회진은 남중국에 유학한 선승들의 기착지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회진이 대중국 무역항이었기에 승려들이 이곳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회진(會津)은 뜻 그대로 해상교류의 물자와 인물이 모이는 나루로서 중국을 비롯한 고대 동아시아 문물교류의 국제무역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회진 풍호(楓湖)나루

회진은 통일신라시대에 해상교류를 통해 수많은 인물들(중국 유학승과 견당사)과 각종 물자가 모이는 국제적인 무역항이었다. 통일신라시대 대중국 항로는 두 개의 바닷길이 있었다. 서해안 중부지역 당은포에서 출항하는 서해북로와 나주 회진에서 출발하는 서해남로가 그것인데, 이 두 바닷길로 해상교류가 크게 활발했다고 한다. 신라말 고려초의 회진현의 포구는 회진 풍호마을 앞 풍호나루였다. 풍호나루를 통해 남중국에서 조사선(祖師禪)을 익힌 해동사무외대사를 비롯한 선종 승려가 귀국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견당사(遣唐使)의 왕래로 인해 인물과 물자가 모여 출항하는 국제 무역항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였기 때문에 명실상부하게 회진(會津)이라 불러 마땅하지 않았을까 한다.

회진 풍호나루는 통일신라로부터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활발하게 국제 무역항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였으나 조선초에 회진현이 폐현이



사진 4 풍호나루 유래비



사진 5 풍호나루 앞을 지나가는 황포돛배

되면서 점차로 축소되거나 쇠락을 면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풍호나루는 1970년대까지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하였으나 영산강 하구언 사업과 4대강 사업으로 영산강의 모습이 크게 변하면서 그 자취를 찾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풍호나루 앞을 운항하는 황포돛배를 통해 1200년 전의 회진의 영광을 상상해 볼 수나 있을까 한다.

풍호나루를 포함한 회진의 모습이 변하기 이전 조선후기에는 어떠하였을까. 18세기에 만들어진 광여도 나주목(廣輿圖 羅州牧, 古4790-58) 지도를 살펴보기로 하자.

회진일대는 조선후기에는 시랑면(侍郎面)이었다. 이곳에서 서쪽으로 용문면(用文面)에서 발원한 냇가 문평천(文平川)이 흐르는 들판을 건너 죽포면(竹浦面)에 이르게 되는데, 산 아래에 서창(西倉)과 선소(船所)가 있었다. 선소는 배를 만들었던 조선소로 오늘날의 다시면 죽산리 화동(花洞) 마을 장춘정(藏春亭)이 있는 곳이고, 서창(西倉)은 지금의 다시면 신석리 서창 후석마을 입구라고 전한다.

회진에서 들판을 건너면, 다시면 신석리 석봉마을 앞에 선석(船石)이 있다. 선석은 배를 매어 두던 장치로 배가 드나들었음을 알려주는 석물이다. 이 마을에 나주의 서창(西倉)이 있어서 선박으로 곡식을 운반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 18세기 자료이지만, 회진의 인근 지역에 배를 만드는 조선소가 있었고, 곡식을 저장하고 그 곡식을 실어 나



그림 1 광여도 나주목 지도

르는 배가 드나들고 있음을 알려주는 상황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와 같이 회진은 고대에서 중세인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초기에 이르기까지 인물과 물자가 모여들고 해상교류를 통해 국제적인 무역항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였다. 회진의 국제 무역항으로서의 성격이 나주목(羅州牧)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도선(道詵)과 고려 태조 왕건(王建)

도선(道詵)은 고려 태조 왕건(王建)의 탄생과 고려의 건국을 예견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왕건은 그의 십훈요(十訓要)에서 도선의 말에 따라 사찰을 건립했다고 함으로써 그가 도선과 긴밀한 관계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도선과 왕건이 연결되었다는 구체적인 기록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도선과 함께 곡성 태안사를 근본도량으로 하는 동리산 문계 승려인 윤다(允多)와 도선의 제자인 경보(慶甫)의 경우는 고려왕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은 인물들이었다. 따라서 도선과 고려왕실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방법의 하나로 고려왕실과 동리산문의 윤다·경보와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도선과 고려왕실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도선과 고려왕실의 관계에 대한 학계의 견해는 상반되게 나타난다. 일찍이 도선비문을 분석한 이마니시 류(今西 龍)는 왕건은 도선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어 그는 왕건과 도선의 관계를 언급한 십훈요 자체도 위작임을 논증하였다. 이에 반대하는 이병도·김상기·김성준을 비롯한 학자들은 십훈요의 사실성을 증명하는 가운데, 십훈요에서 언급한 왕건과 도선의 관계를 인정하였다.

윤다(允多)·경보(慶甫)와 고려왕실

윤다는 동리산문 개창자인 혜철과 그의 법제자 ?여의 선법(禪法)을 계승한 동리산문 법맥의 계승자였다. 윤다는 혜철의 법손(法孫)이었다. 이러한 윤다에 대해서는 그의 비문이 전해지고 있다. 그 내용을 편의에 따

라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자.

A) 대사의 범휘는 윤다이다. 자는 법신으로 서울 사람이다. (중략) 법조 서당이 철(혜철)에게 전하였고, 철이 선사 여에게 전하였는데, 여가 우리 스님께 전하였으니, (대사는) 곧 서당의 증손이다. 대사는 법의 교화를 서당에게서 전해 받았으나 서쪽으로 가서 유학하는 수고는 하지 않았다.

B) ① 신성대왕(고려 태조)은 때를 탄 성스러운 임금이요, 드물게 있는 밝은 임금이었다. 나라를 평안히 하고 속세를 위무하는 큰 기미를 풍성하게 하고, 법을 수호하며 이치에 부합하는 신이한 기술에 통달하였는데, 여러 가지 정무를 하는 여가에 마음을 현문(玄門)에 두셨다. 즉위하기 전부터 대사의 명성을 익히 들었으므로 낭관(郎官)을 보내어 왕의 편지를 가지고 산에 들어가 청하였다.

② 태조가 물었다. “옛 스승(古師)께서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만약 열반에 이른 자는 부처님의 마음에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곧 그와 같은 데에 이르신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어떤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닙니다. 마음 자체가 과정이 없는 것입니다.”, “짐은 하늘의 도움을 받아 어지러움을 구하고 폭군을 베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편안하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오늘의 물음을 잊지 않으신다면 나라가 매우 다행일 것이며, 백성들에게도 지극히 다행일 것입니다.”, “대사께서는 어떠한 덕행으로 중생을 교화하여 따르게 하셨습니까?”, “신승(臣僧)은 스스로도 구제하지 못하였는데, 어찌 감히 다른 속박을 벗겨 주겠습니까?”

③ 황주원(黃州院) 왕옥낭군(王旭郎君)이 맑은 기풍을 멀리서 우러러
저절막한 편지를 전하여 제자가 되기를 원하였고 스승을 따르기를 바랐다.

④ 내의령(內議令) 황보숭(皇甫崇)과 태상(太常) 충량(忠良)이 날마다 대사의 음식을 살피기를 마치 심부름꾼의 직분을 행하는 것과 같이 하니 대사가 편치 아니하였다.

C) 어떤 사람은 칠정(七淨, 계율)을 받아 걸출하고, 어떤 사람은 십지(十地, 화엄)를 쌓아 중생을 제도한다. (이런 이들은) 옛부터 드물었고 지금도 귀한데, 두 가지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이가 바로 우리 대사이다.

D) “옛말에 ‘마음을 오로지 하면 돌도 뚫을 수 있고, 뜻이 간절하면 샘도 솟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도는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며, 부처로 나아가는 것은 마음에 달렸다. 잘 익힌 자는 찰나에 깨닫고, 어리석은 자는 만겁토록 머물게 된다……. 네 자신을 잘 살피라. 나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A) 사료에서 보듯이 윤다(允多, 864-945)는 당나라 서당지장의 선법을 이은 혜철 - ?여- 윤다로 이어지는 사자상승(師資相承)의 법맥을 이은 선승이었다. 그는 동리산문의 개산조 혜철의 문하인 점에서 선승이면서도 풍수지리에도 밝았던 인물로 이해된다. 그도 도선처럼 당시 선승(禪僧)들의 관행이랄 수 있는 중국유학을 하지 않았던 승려였다.

동리산문의 정맥을 잇고 있는 승려는 혜철의 법제자인 ?여의 법인을 이은 윤다였다. 그는 경보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지만, 그보다 먼저 왕건과 연결되었다. 그는 경문왕 4년(864)에 태어났으며 경사인(경주인)이었다. 어머니는 박씨였고, 조고 때까지는 그의 가문이 강성했다는 것

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윤다 대에 이르러 중앙귀족으로서의 세력기반을 잃고 낙향하여 지방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윤다는 8세에 출가하여 그 후 사방을 유력하다가 동리산문의 ?여대사의 문하에 나아가게 되었다. 이어 가야 갑의 신수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다시 동리산으로 돌아온 윤다는 거기에 서 산적을 교화하면서 주지직을 맡게 되었다.

대안사(현재의 태안사)에 주지직을 맡은지 얼마 안 되어 왕건과 연결되었다. 왕건은 낭관을 보내어 윤다를 개경으로 맞아들였다. 왕건과는 선문답을 하였다. 또 아직 왕위에 오르지 않은 황주원 왕육남군(뒤에 고려의 4대 임금 광종이 됨)의 돈독한 귀의를 받았다.

뒤에 대안사에 귀산할 때에도 내의령 황보충량이 그를 모시고 있었다. 이 때 고려왕실은 동리산문에 많은 토지와 노비를 내렸다. 대안사에 돌아온 윤다는 혜종 2년(945)에 입적하였다. 그의 나이 82세이고, 승랍은 66년이었다. 혜철을 비롯한 동리산문의 문도들은 대체로 신라조정에 대해 호의적인 세력과 연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신라에 적대적인 세력과 손을 잡고 있었다.

다음으로 경보에 대해 살펴보자.

경보(慶甫, 869-948)를 이해하는 데는 958년에 김정언이 찬한 비문이 참고가 된다.

E) 법휘는 경보(慶甫)이고, 애칭은 광종(光宗)이며, 속성은 김씨인데, 영암군 구림 사람이다. 아버지는 익양(益良)인데 그 벼슬은 여섯째 관등 알찬이다. 오수(鰲岬)에 신령이 내려와 빛나는 여경을 기르고 계림



사진 1 곡성 태안사 광자대사 윤다 승탑비

에서 참사람이 태어나 백세의 방명에 올랐다. 어머니 박 아무개는 몸놀림이 깨끗하고 마음씨가 향기로워 음식 마련이며 집안꾸리기에 어긋남이 없었고 집안 화목이 살림 넉넉함에서 말미암았다. 868년(경문왕 8) 무자(戊子) 7월 초사흘 밤 꿈에 흰 쥐가 파랑 유리구슬 한 알을 물고 왔었다. 드디어 사람 말로 가로되, “이것은 바로 세상에 드문 진기한 물건이자 불문의 훌륭한 보배이니 품어서 모름지기 호념(護念)해라. 태어나면 반드시 빛이 빛나겠다” 했다. 인하여 태기가 있어 마음에 두고 재계했는데, 석가모니 출세 4월 스무날 태어났다.

F) 부인산사(夫仁山寺)에 가서 머리 깎았으나 학문 숲에 깃들어서 선산(禪山)을 즐기지 못했다. 빠른 발이 속절없이 선(禪)에 멈춰도 학문하는 마음에 아직도 집착되더니 영혼이 교감되는 저녁에 부처가 이마를 만지고 귀를 당기면서 이에 가사를 주어 가로되, “네가 이것을 입는 까닭은 몸을 지키어 수행함이로다. 게다가 이곳은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느긋하게 머무적거릴 곳이 아니다. 빨리 여기를 떠나감이 또한 마땅하지 않겠는가?” 대사가 곧 몸의 감각을 열고서 경계하여 생각하기를 ‘도리를 장차 행하려면 때를 잃어버릴 수 없다’하고 어두운 새벽에 일어나 앉아서 날 새기를 기다렸다가 행장을 꾸려서 철새처럼 훌쩍 떠났다. 이에 백계산에 나아가 도승(詔)화상(道乘和尚)을 뵈고 제자가 되기를 청했다. 보살도를 닦고 여래집에 들어가, 깊숙한 눈이 일찍이 열리고 이치를 아는 마음을 이미 깨달아 생각하기를 ‘지혜가 아니면 그 불법을 지킴이 없고, 계율이 아니고선 그 어긋남이 없다’고 했다. 나이 열여덟에 월유산 화엄사에서 구족계를 받았으니, 겨우살이덩굴이 눈을 터뜨림이고 부남이 개울을 넘음이다. 계율의 향기를 더욱 장엄하고 심지의 굳음을 매우 밝혔다. 무심코 비가 바야흐로 멎으니 나

온 구름이 돌아감 같아 다시 백계산에 가서 큰 스승에게 하직하니 스승이 인하여 일러 가로되, “네 그 뜻을 빼앗을 수 없고 그 행동을 막을 수 없다. 네가 나를 보통 사람으로 살아도 어찌하지 못하는구나”하고 드디어 옷으면서 들어주었다. 그로부터 유행(遊行)에 널리 봄이 있었고, 배움에 정해진 스승이 없었으니 보령 성주사의 무염(無染)대사와 강릉 굴산사의 범일(梵日)대사를 두루 뵈고 애깃거리를 가까스로 휘두르면 깊은 이치를 알아내었다. 생각하기를, ‘말을 깨고 옥을 찾음이 도리와는 먼 것인가. 행하면 곧 옳은 것이다’ 했다. 드디어 892년(진성왕 6) 임자 봄에 산을 나서매 더벅거리고 바다에 다가서매 펄렁거리니 당나라에 들어가려는 마음이 쏠리는 것을 어찌할까. 이에 바다 건너는 선주(船主) 나그네에게 여쭙니, 붙여 실리기를 허락하기에 기꺼이 동행하여 이미 주교(奏橋)을 지나고 한지(漢地)에 돌아 이르러서, 무심(無心)으로 길을 묻고 자취로 스승을 찾아 무주(撫州)의 소산(疎山)에 이르러 광인(匡仁) 화상을 뵈오니, 그이가 허락하여 가로되, “바로 그대가 신라의 용 아들인가.” 대사가 그옥이 드디어 비밀을 드러내어 말하니 이에 묻고서 승당(昇堂)하기를 허락했다. 인하여 방에 들어 바야흐로 목격(目擊)에 도움 받아 이미 심전(心傳)을 얻었다. 광인 어른이 크게 기뻐하면서 인하여 말해 가로되 “그 언젠가는 불법이 동전(東傳) 하리라는 얘기와 서학(西學)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리라 했는데, 곧 나와 말하는 그대가 분명하오. 동쪽 사람으로서 눈짓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대뿐이겠소.” 손을 잡아 지혜의 등불을 전하고 마음으로 인하여 진리의 도장을 주었다. “그대는 그 반도산 옆에서 불일(佛日)을 도와서 다시 가시나무를 태워 버리고 바다 건너에 선(禪)의 세계를 이끌어 다시 넓힘이 기약할 만 하오.” 이로부터 스님의 참된 분에게는 반드시 나아가고 경지가 뛰어난 분에게는 꼭 찾아갔다. 강서(江西)의 노선(老善) 화상을 찾아뵈오니 화상이 이에 그 말을 듣고자 그 행동을 보고자 했다. 인하여 말해 가로되, “흰 구름이 나그네

의 길을 막았구나.”

대답해 가로되,

“스스로 하늘 길이 있거늘 흰 구름이 어찌 머무르겠습니까.”

화상이 대사(大師)로써 짹싸게 대답하되

“엷매이지 않으며 큰소리 하여 막힘없다”

하여 이에 그이를 보내면서 가로되,

“이로움은 가는 데에 있으나 때가 된 뒤에 행동하도록 하시오.”

대사가 대봉새(大鵬)는 반드시 남명에서 변하고 두루미는 마땅히 동해로 돌아간다 하여 생각하기를 중국에서 유행(遊行)하기를 그만두고 고국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마침 돌아가는 배를 만나게 되어 동쪽으로 돌아왔다.

G) 마침 귀국하는 배를 만나 고국에 돌아왔다. 천우 18년(921) 여름에 전주 임피군에 도달했다....주의 도통인 견훤 태보가 만민을 통용하고 있었다....대사의 인자한 얼굴을 우러러 뵈고는 침양하고 의지하는 뜻이 배나 더해졌다. 이에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우리 스승을 만남이 비록 늦었지만 제자됨을 어찌 늦추겠는가?”라고 하면서, 자리를 피하기를 진실히 하고, 띠에 적기를 독실하게 했다. 드디어 주내의 남쪽에 있는 남북선원에 머물 것을 청하자 대사가 말하기를, “새도 나무를 가려 깃들거늘, 제가 어찌 꼭지 달린 박과 외치럼 엷매여 머물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백계산 옥룡사는 돌아가신 스승께서 도를 즐기시던 맑은 거처로서 참선하기에 알맞은 곳이고, 구름 덮인 시내가 허공에 있는 듯 하여 경치가 가장 적당한 곳이었다. 드디어 태보에게 말하니 이를 허락하여 그 곳에 옮겨 거처하였다.

대사가 중국에서 구름처럼 유학하고 돌아와서 안개처럼 남산에 숨었는데도 근심함이 없이 빼어난 경관에서 진리를 펴 복을 천하에 쌓았다는 것을 들었다. 태조는 이에 맑은 바람을 바라보고 하얀 달을 멀리서 쳐다

보듯, 서둘러 서신을 보내 왕경에 오도록 했다. 대사의 훌륭한 모습을 보고 귀로써 대사의 좋은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비록 승려에게 귀의하는 예였으나, 바야흐로 부처를 모시는 예의와 같았다.

의공대왕(혜종)은 태조의 유품을 받들고 그 뜻을 계승하였다. 마음을 기울여 정성을 다하고 법력을 기원함이 정성스러웠다.

문명대왕은....서찰을 보내 대궐에 오기를 기다렸다.

경보는 광양 백계산의 도승의 법인을 이어 받았다. 도승은 도선일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경문왕 8년(868)에 태어났으며, 속성은 김씨이고 영암인이었다. 아버지는 옥두품에 속하는 알찬 익량이고 어머니는 박씨이다. 경보의 가문도 본래 중앙귀족이었으나 낙향하여 지방호족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경보는 이미 영암지방에서 호족세력을 형성하였던 도선과 같은 계통의 인물로 이해된다.

경보는 유학에 들 나이에 출가하여 대구 부인사에 거주하였다. 곧 이어 백계산의 도선의 제자가 되어 선을 닦았다. 헌강왕 11년(885) 18세 되던 해 월유산 화엄사에서 구족계를 받고, 다시 옥룡사로 돌아온 그는 배움에 일정한 스승이 없다고 하면서, 성주산문의 무염과 굴산문의 범일에게 나아가 현기를 찾으려 했다. 이에 만족하지 못한 경보는 진성왕 6년(892) 중국에 들어가 무주의 소산광인의 문하에 들었다가, 그의 법인을 받아 경명왕 5년(921)에 귀국하였다.

한편 경보가 귀국하던 시기(921년)는 서남해의 해상권이 왕건의 수중에 들어간 뒤였다. 그러한 가운데도 경보는 견훤의 도움을 받아 귀국하여 전주에 머물렀다. 그는 견훤이 제공한 남북선원(南福禪院)에 머물렀다가 다시 견훤의 배려로 광양의 옥룡사로 나아가 거기에서 주지가 되었다. 그는 옥룡사에 주석한 이후 왕건에게 연결되었다. 해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자리 잡은 옥룡사는 왕건의 수중에 들어가기 쉬었을 것이다. 경보는 후백제 멸망 뒤에 왕건과 대면하였다.

후삼국 통일전쟁을 하면서 왕건은 그의 명성을 전해 듣고 그를 불러 만나게 되었던 것이다.

윤다와 경보는 후백제 지역의 고승이었다. 왕건이 이들을 후대한 것은 그들이 풍수지리설에 능한 때문이 아니었다. 고려 왕실은 이들을 우대하여 후백제의 백성을 회유하여 민심을 수습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도선(道詵)과 고려 태조 왕건(王建)

도선이 왕씨 세력과 연결된 것은 그의 제자인 경보가 고려 태조 왕건과 연결되면서 부터일 것이다.¹⁾ 동리산문의 개산조 혜철을 비롯한 동리산문의 문도들은 대체로 신라조정에 대해 호의적인 세력과 연결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적대적인 세력과 손잡았을 것이다. 호남지역에서 신라 왕실에 적대적인 세력은 뒤에 견훤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²⁾

도선의 풍수지리설이 견훤의 지지 하에 지리산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었다고 한다.³⁾ 도선의 제자인 경보가 견훤의 후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스승인 도선이 왕건과 연결되었을 까닭이 없다. 이것은 경보가 왕건과 연결된 이후에 생겨난 이야기이다.⁴⁾ 왕건 세력이 도선의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풍수지리설을, 송악을 중심으로 한 풍수지리설로 개편하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다. 결국 도선의 제자인 경보를 포용함으로써 이 소망은 달성되었다.⁵⁾

1) 이기백, 「한국풍수지리설의 기원」, 『한국사시민강좌』 14, 일조각, 1994, 12쪽

2) 김두진, 「동리산문의 성립과 그 사상」, 『신라하대 선종사상사 연구』, 일조각, 2007, 315쪽

3) 이기백, 앞의 논문 같은 쪽

4) 이기백, 앞의 논문 같은 쪽

5) 이기백, 앞의 논문 13-14쪽



사진 2 광양 옥룡사지 선각각사 도선 부도전지 출토 부도편 문양 탁본

『高麗史』의 고려세계(高麗世系)에 주(註)로써 인용된 민지(閔漬)의 『편년강목(編年綱目)』에 의하면

도선이 두 번째로 송악에 와서 왕건에게 출사치진(出師置陣), 지리천시(地利天時)의 법(法)과 망질산천과(望秩山川)과 감통(感通)하고 보우(保佑)하는 이치를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다.

도선이 직접 태조를 만났을 리는 없으나 간접적으로 왕건에게 전하여진 도선의 풍수지리설이 후삼국 통일전쟁에 있어 병법이나 군략적인 의미도 갖게 되었던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⁶⁾

왕건이 승려와 결합하는 의도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⁷⁾ 그 하나는 호족세력 연합책의 일환이다. 또 하나는 교화적인 면으로 민심의 수합이다.

왕건과 승려의 결합은 고려 통일정책이었던 호족연합책의 일환이었으

6) 崔柄憲, 「道詵의 生涯와 羅末麗初의 風水地理說-禪宗과 風水地理說의 關係를 중심으로-」, 『韓國史研究』11, 1975, 145쪽

7) 金杜珍, 「王建의 僧侶結合과 그 意圖」(『韓國學論叢』4, 1981, 141쪽)

나, 통일이 가까워지면서 그것은 호족연합 뿐만 아니라 행복한 지역의 백성들을 교화하거나 내지는 민심을 수합하는 면까지 결들이게 되었다.⁸⁾

곡성 태안사를 근본도량으로 하는 동리산문은 지리적 관계로 후백제 견훤과 결연되었다. 도선과 그의 제자 경보 역시 견훤과 연고되었다. 고려로 통일한 이후 후백제와 연결된 기록은 승려들 비문에 언급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반면에 고려왕실과 관련된 부분은 실제 보다 자세히 언급되었을 것이다. 후백제 멸망 후 고려왕들은 후백제의 견훤과 결연된 동리산문 계통의 승려들을 포섭하여 우대함으로써 민심을 수습하고자 했다. 또한 후백제 풍수지리설을 뒤엎고 개경 중심의 풍수지리설로 재편성 하고자 했다.

나주 점령(903년) 이후 왕건이 이 지역에서 세력을 부식하면서, 동리산문은 서서히 왕건의 세력권으로 들어갔다. 왕건과 연결되었을지라도 처음에 견훤과 깊이 연결되었다면, 동리산문이 고려 초에 계속해서 세력을 떨쳤을 것 같지 않다. 광종 때에 잠깐 활발하게 활동하지만, 이후 이들의 행적을 찾기 어렵다. 고려중기에 도선의 풍수지리설이 새롭게 부각되자, 동리산문에서 분립한 도선계 승려들의 활동이 오히려 뚜렷해졌다.

8) 金杜珍, 같은 논문, 152쪽

도선(道詵)은 당(唐) 나라에 유학(遊學) 하였을까?

도선(道詵, 827-898)은 9세기 초반에 태어나 그 말기까지 산 선승(禪僧)이었다. 그는 선승(禪僧)이면서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에 능통(能通)하였다. 그의 사후(死後)인 고려(高麗)·조선(朝鮮) 시기에는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의 대가(大家)로서, 오늘날에도 우리나라 풍수지리설의 비조(鼻祖)로 추앙되고 있다. 따라서 도선(道詵)에 대한 연구는 일제시기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사, 불교사, 풍수지리(風水地理), 설화(說話) 등 여러 부문에 걸쳐 지대한 관심아래 꾸준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런데 도선(道詵)이 입당(入唐)하여 당(唐) 나라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의 대가(大家)인 일행(一行)을 사사(師事)했다는 주장이 고려중기(高麗中期)에 제기(提起)되었다. 이와는 달리 도선(道詵)에 관한 가장 신뢰할만한 기록인 고려중기 의종대(毅宗代, 1147-1170) 최유청(崔惟淸)이 지은 「옥룡사선각국사증성혜등탑비(玉龍寺先覺國師證聖慧燈塔碑)」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는 도선(道詵)의 입당(入唐)을 부인(否認)한 것에 다름이 아니다. 이후 서로 다른 두 가지 견해가 오늘날에까지 전승되어 오고 있다. 이 가운데 도선(道詵)의 입당(入唐)과 일행사사설(一行師事說)은 일행(一行)의 생몰연대(生沒年代, 683-727)와 도선(道詵)의 생몰연대(827-898)와 현격(懸隔)한 차이(差異)가 있어 얼른 납득(納得)하기 어렵다. 고려중기에 이를 언급한 인물들도 몰랐을 수가 없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이해하는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한편, 도선(道詵)에 관한 연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당(入唐) 여부(興否)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연구자는 없다. 그의 입당(入唐)을 믿지 못할 사실로 이해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필자는 도선

(道詵)의 입당(入唐)과 일행사사설(一行師事說)을 언제, 누가 그러한 주장을 했는지, 또 정치사회적 배경이 무엇인가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도선(道詵)의 입당(入唐)과 일행사사설(一行師事說) 관련기록을 먼저 살펴본 다음, 어떤 정치사회적 배경 하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입당(入唐)과 일행사사설(一行師事說)을 언급하지 않은 채 국내에서 적인선사(寂忍禪師) 혜철(慧徹)과 지리산(智異山)의 이인(異人)에게 선종(禪宗)과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을 배운 사실을 기록한 입당부인설(入唐否認說)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도선(道詵)의 입당(入唐)과 일행사사설(一行師事說)이 제기될 당시의 고려중기의 정치사회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선(道詵)의 입당(入唐)과 일행사사설(一行師事說)

도선(道詵)이 입당(入唐)하여 당(唐) 나라의 일행선사(一行禪師)에게 사사(師事)했다는 설(說)과 관련된 기록으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

- A) 신라 말에 도선(道詵)이란 승(僧)이 있어 당(唐)에 들어가서 일행(一行)의 지리법(地理法)을 배우고 돌아와 비기(秘記)를 지어 전했는데 김위제(金謂磾)가 그 술(術)을 배워 상서(上書)하여 남경(南京)으로 천도(遷都)하기를 청하였다.(『高麗史』 列傳 35 方技 金謂磾)
- B) 동리산(桐裏山)의 조사(祖師) 도선(道詵)이 당(唐)에 들어가 일행(一行)의 지리법(地理法)을 알아 가지고 돌아왔다.(『高麗史』 高麗世系 作帝建)

A)는 김위제(金謂磾)가 숙종(肅宗)에게 남경천도(南京遷都)를 주청(奏請)하는 가운데 도선(道詵)이 입당(入唐)하여 일행선사(一行禪師)의

지리법(地理法)을 배워 귀국(歸國)했다고 주장한 내용이다. 김위제(金謂禪)는 일행(一行)의 지리법(地理法)을 배워 온 도선(道詵)의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을 자신이 계승하였다는 것이다.

B)는 의종대(毅宗代)에 김관의(金寬毅)가 편찬(編纂)한 『편년통록(編年通錄)』의 기록으로, 『고려사(高麗史)』의 고려세계(高麗世系)에 인용된 것이다. 동리산문(桐裏山門)의 선종승려(禪宗僧侶) 도선(道詵)이 당(唐) 나라에 유학하여 일행(一行)의 지리법(地理法)을 전수받았다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도선(道詵)의 입당(入唐)과 일행사사설(一行師事說)은 고려중기(高麗中期) 숙종대(肅宗代) 김위제(金謂禪)가, 의종대(毅宗代) 김관의(金寬毅)가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고려말기, 조선시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전승되고 있다. 고려말기(高麗末期)에 굉연(宏演)이 찬술(撰述)한 「고려국사도선전(高麗國師道詵傳)」에 의하면,

처음 도선(道詵)이 당(唐)에 들어가 일행선사(一行禪師)에게 배웠다. 일행선사(一行禪師)는 삼교(三敎)를 다 통했고 역시 천도, 음양, 산수에 정통하여 미묘한 것까지 하지 않음이 없었다.⁹⁾

고 되어 있다. 「고려국사전(高麗國師道詵傳)」은 제목은 도선전(道詵傳)으로 되어 있으나 당(唐) 나라 일행선사(一行禪師)의神通(神通)함을 주로 언급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여기에서도 도선(道詵)이 당(唐)에 들어가 일행선사(一行禪師)에게 배웠다고 한다.

또 고려말기에 『주관육익(周官六翼)』에도 같은 내용이 실려있다.

『주관육익(周官六翼)』에 이르기를, “도선이 당(唐) 나라에 들어가서

9) 『朝鮮寺刹史料』下(寶蓮閣 影印本, 1980년) 377쪽

일행 선사(一行禪師)에게 지리법(地理法)을 배워 가지고 돌아왔다.”¹⁰⁾

조선초기(朝鮮初期)의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에도 다음 기록이 나온다.

본군 사람의 속설에 전하기를, “고려 때 사람 최씨의 정원 가운데에 오이 하나가 열렸는데, 길이가 한 자나 넘었으므로, 온 집안 사람들이 자못 이상하게 여겼었다. 최씨의 딸이 몰래 이것을 따 먹었더니, 저절로 태기가 있어,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부모가 아버 없는 자식을 낳았다고 꾸짖고 대숲[竹林]에다 버려 두었는데, 예니레 만에 그 딸이 가서 보니, 비둘기가 와서 날개로 이를 덮고 있었다. 부모에게 여쭙어 가서 보이니, 이상하게 여겨서 데려다가 길렀다. 장성하게 되자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이름을 도선(道詵)이라 하였다.” 한다. 『주관육익(周官六翼)』에 이르기를, “도선이 당(唐)나라에 들어가서 일행 선사(一行禪師)에게 지리법(地理法)을 배워 가지고 돌아왔다. 산(山)을 답사(踏查)하는데, 백두산(白頭山)에서 시작하여 흑령(鵠嶺)에 이르러 세조(世祖)의 집을 지나다가, 그 새로 집짓는 곳을 보고 이에 말하기를, ‘피를 심을 땅에 【피와 임금[王]은 음(音)이 다르나, 뜻이 같은 까닭이다.】 어찌 삼[麻]을 심는고.’ 하고, 말을 마치자 가니, 부인이 이 말을 듣고서 들어가 세조(世祖)에게 고하였다. 세조가 황급하여 신을 거꾸로 신고 뒤쫓아 가서 만나보니, 옛부터 서로 아는 듯하여 같이 유람하기를 청하였다. 함께 구령(鳩嶺)에 올라가서 산수(山水)의 맥(脈)을 살펴보았는데, 도선이 위로 천문(天文)을 바라보고 아래로 시기의 운수[時數]를 살펴보고 말하기를, ‘이 땅의 맥(脈)이 임방(壬方)인 백두산(白頭山)으로부터 수(水)와 목(木)이 근간(根幹)이 되어 내려와서 마두명당(馬頭明堂)이 되었으니, 마땅히 수(水)의 큰 수[大數]를

10) 『世宗實錄』地理志 靈巖郡條

쫓아서 집을 육육(六六)으로 지어 36간으로 하면, 하늘과 땅이 큰 수[大數]에 부응할 것입니다. 만일 이 비결(秘訣)대로 하면 반드시 거룩한 아들[聖子]을 낳게 될 것이니, 마땅히 그 이름을 왕건(王建)이라 할 것입니다.’ 하고, 인하여 비봉(秘封) 한 통을 만들어 길봉에 쓰기를, ‘삼가 글월을 받들어 백배(百拜)하고 미래(未來)에 삼한(三韓)을 통합할 임금 대원 군자(大原君子) 족하(足下)께 드립니다.’ 하였다. 세조가 즉시 이 비결을 쫓아 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 이듬해에 과연 태조(太祖)를 낳았다.” 한다.¹¹⁾

조선중기(朝鮮中期)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0년)에도 다음 기록이 나온다.

속설에, 신라 사람 최씨가 있었는데 정원 안에 열린 오이 하나가 길이가 한자나 넘은 집안 식구가 펍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최씨 집 딸이 몰래 그것을 따 먹었더니, 이상하게 임신이 되어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그의 부모는 그 애가 사람과 관계없이 태어난 것이 미워 대숲에다 내 버렸다. 두어 주일 만에 딸이 가서 보니 비둘기와 수리가 와서 날개로 덮고 있었다. 돌아와 부모에게 고하니 부모도 가서 보고 이상하게 여겨 데려다가 길렀다. 자라자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는데, 이름을 도선(道詵)이라 했다. 그는 당(唐)나라에 들어가 일행선사(一行禪師)의 지리법(地理法)을 배워 가지고 돌아와 산을 답사하고 물을 보는데 신령스러움이 많았다. 뒤에 그 곳을 구림(鳩林) 또는 비취(飛鷲)라 했다.¹²⁾

11) 『世宗實錄』151 地理志 靈巖郡條

12) 『新增東國輿地勝覽』35 靈巖郡 古跡條의 崔氏園

고 한다. 영암(靈巖) 출신의 도선(道詵)이 입당(入唐)하여 일행선사(一行禪師)의 지리법(地理法)을 배우고 귀국했다고 하였다.

조선후기(朝鮮後期) 효종(孝宗) 4년(1653) 이경석(李景奭, 1595-1671)이 지은 「월출산영암도갑사도선국사수미대선사비명(月出山靈巖道岬寺道詵國師守眉大禪師碑銘)」에 의하면

국사의 휘는 도선이니 신라 낭주 사람이다. 어머니는 최씨이니 영암의 성기산 벽촌에서 진덕왕의 말년에 태어났다. 13세에 사신을 따라 중국으로 가서 호위(胡渭)가 지은 우공(禹貢)의 산천설(山川說)에 따라 두루 살펴보고 당가(唐家)의 문물을 익혔다. 당나라 황제가 궁내의 연영전(延英殿)에서 스님을 영접하고 간곡히 부탁하기를 짐의 꿈에 금인(金人)이 나타나 돌아가신 대행황제(大行皇帝)의 신릉(新陵)의 터를 스님을 초청하여 점복토록 하라는 현몽(現夢)을 받았으니, 스님은 사양하지 말고 가장 좋은 명당 터를 잡아 달라고 청하였다. 도선은 피할 수가 없어 조왕신(竈王神)이 지시한대로 황제가 타고 다니는 어마(御馬) 가운데 백색(白色) 말 한 마리를 내려 달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가장 길한 터를 잡아 바쳤는데, 보는 사람마다 칭찬하기를 천부적으로 타고난 지리(地理)에 대해 특이한 안목을 가졌다고 칭송하였다. 그러나 스님은 어찌 지술(地術)에 대한 능력뿐이겠는가! 천자도 국사로 책봉하였으며, 일행선사(一行禪師)도 이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고 찬탄하였다.

고 되어있다. 도선이 13세에 당나라 황제의 초청을 받아 대행황제(大行皇帝)의 신릉(新陵)의 터를 잡아주었다고 한다. 그는 황제의 명당터를 잡아준 공로로 당나라의 국사에 책봉되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일행선사(一行禪師)까지도 도선의 지리법에 대해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고 감탄해 마지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사진 1 영암 도갑사 도선국사 수미선사비(문화재청)

아울러 같은 비의 비음기에는 정두경(鄭斗卿, 1597-1673)이 지은 「유명조선국전라도영암군월출산도갑사국사도선비음명(有明朝鮮國全羅道靈巖郡月出山道岬寺國師道誡碑陰銘)」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기도 하자.

(전략)

신승(神僧)이라 불리우던 스님 있으니
 그가 다름 아닌 도선국사네!
 위대하신 고려 초의 도선국사는
 민족 위해 태어나신 용상이시다!
 어떤 분야 학술이나 무불통(無不通)이나
 그 중에 뛰어난 지술(地術)이라네!
 당황제가 현몽(現夢)받고 유택(幽宅)을 위해
 예를 갖추 사신 보내 초빙해 가다
 중국 가서 황제 위해 점복해주고
 일행선사(一行禪師) 친견하고 지술(地術)을 받다

스님께서 중국에서 수학한 다음
마음 가득 채우고서 귀국하였네
귀국 후엔 송악터를 살펴보고서
오백년의 도읍터라 지상(地相)을 보다!
(후략)

로 되어있다. 앞의 내용을 정두경이 다시 시(詩)로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같은 비의 좌측에 새겨진 이수인(李壽仁, 1601-1661) 지은 글
에 의하면,

(전략) 나이 동년(童年)이 되기 전에 월남사(月南寺)에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다. 그 후 당(唐)나라에 들어가 일행선사를 친견하고 지술(地
術)에 대한 그의 법을 모두 전해 받았다. 그 후 곧 귀국하여 일구일수(一
丘一水)의 명사(名寺)와 거탑(巨塔)이 국사가 점복(占卜)하여 창건한 곳
이 아님이 없을 정도였다.

고 적혀있다. 이에 따르면 도선이 월남사에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
었다고 한 내용이 추가 되어 있는데, 이는 새로운 주장으로 주목된다.
그 후 그는 당나라에 들어가 일행선사를 친견하고 지리법을 전수 받았
다고 하였다.

조선말기 대운사 승려 범해각안(梵海覺岸)이 지은『동사열전(東師列
傳)』 도선국사전(道詵國師傳)에 따르면

(도선이) 13세에 당나라의 배를 얻어 타고 당나라로 들어갔다. 당나라
일행선사가 언젠가 제자들에게 ‘고을의 물이 거꾸로 흐르면 나의 도를
전할 사람이 올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문인들

가운데 그 말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달려와 아뢰기를 ‘오늘 고을 물이 역류(逆流)합니다’고 했다.

일행이 그 말을 듣고 곧 가서 장삼을 두르고 몸가짐을 단정히 한 다음 문 밖으로 나가자 그 때 마침 도선이 찾아 뵈오려 마약 당도하는 것이었다. 일행이 ‘기다린지 오래이거늘 왜 그리 늦었는가?’ 하며 함께 크게 기뻐하면서 즉시 도선을 맞아들여 머물도록 했다. 도선이 그의 술법을 모두 터득하고 나서 떠날 뜻을 비치자 일행은 작별에 임해 ‘나의 도가 동쪽으로 가게 되었구나! 부디 잘 가게....’하며 아쉬워 했다.¹³⁾

로 기술되어 있다. 여기서도 도선이 이경석 찬술의 비와 마찬가지로 13세에 당나라에 들어갔으며, 그가 일행선사(一行禪師)를 직접 만나 그의 지리법을 모두 터득하여 귀국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고려말기-조선말기 도선의 입당과 일행사사설은 고려중기의 김위제나 김관의의 기록과는 달리 보다 구체적이다. 또한 도선이 13세에 당나라 황제의 초청으로 입당하여 일행선사(一行禪師)를 직접 친견하여 지리법을 배웠다고 되어있다.

도선이 입당하여 배웠다는 일행(一行)은 어떤 인물인가? 당나라 사람인 일행(一行, 683-727)은 속성(俗姓)이 장씨(張氏)이며 중국(中國) 거록(鉅鹿) 사람이었다. 일찍이 출가하여 북종선(北宗禪)의 보적(普寂)에게 선법(禪法)을 받고, 당양산(當陽山)의 오진(悟眞)으로부터 율(律)을 배웠으며, 형주(荊州) 옥천사(玉泉寺)의 홍경으로부터 천태교관(天台敎觀)을 배웠다. 또 그는 역상(曆象)과 음양오행(陰陽五行)에도 정통하였다. 그는 특히 선무외(善無畏)에게서 밀교(密敎)를 배워 『대일경소(大日經疏)』를 지었으며, 또 금강지(金剛智)로부터 다라니비인(陀羅尼秘印)을 배웠다. 그에게는 그 밖에 『섭조복장(攝調伏藏)』

13) 梵海 撰 金倫世 譯, 『東師列傳』(광제원, 1991) 46-47쪽

『석씨계록(釋氏系錄)』, 『개원대연력(開元大衍曆)』 등의 저서가 있었다. 경사(經史)를 널리 배웠고 특히 천문역산(天文曆算), 음양오행(陰陽五行), 참위(讖緯)의 학문에 정통했다고 한다. 그는 칙명으로 『구당서(舊唐書)』 율력지(律曆志)에 편입된 「대연력(大衍曆)」을 저술하기도 하였다. 그는 풍수지리학자이며 천문가였던 셈이다.¹⁴⁾ 그런데 그는 727년(唐 開元 15年)에 장안(長安) 화엄사(華嚴寺)에서 45세로 세상을 떠났다. 따라서 도선이 일행에게 배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도선은 827년(新羅 興德王 2年)에 출생하여 898년(新羅 孝恭王 2年)에 입적한 인물이다. 一行이 활동할 당시 도선은 태어나지도 않았던 것이다. 도선과 일행은 그들의 생물 연대가 겹치지 않아 직접 면대(面對)하여 사사했다고 보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고려말기의 이후의 기록은 믿기가 어렵다. 그것은 고려중기 김위제나 김관의의 기록을 보고 후대에 전사(傳寫)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앞의 A), B) 사료에서 언급되었듯이 김위제 · 김관의는 도선이 직접 일행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일행의 지리법을 전수받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김위제나 김관의도 일행과 도선이 생전에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다면 도선은 입당하여 일행(一行)이 아닌 또 다른 인물로부터 일행(一行)의 지리법(地理法)을 전수받았던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나말려초 입당(入唐) 선승(禪僧)들의 사자상승(師資相承)의 전법관계(傳法關係)이다.

나말려초 시기에 입당하여 당나라 선승에게 선법(禪法)을 인가받고 신라·고려에 귀국했던 선종승려를 표로 정리해 보면 <표1>과 같다.

14) 『宋高僧傳』5 唐中岳嵩陽寺 一行傳 및 『舊唐書』191 方技 一行傳.

<표1> [나말려초 입당전법 귀국한 선종승려]

法諱	入唐年代	歸國年代	傳法師僧(중국)	傳法弟子	所屬山門
道義	선덕왕 5년(783)	헌덕왕 13년(821)	西堂智藏	廉居	迦智山門
洪陟		흥덕왕 원년(826)	西堂智藏	秀澈 片雲	實相山門
慧昭	애장왕 5년(804)	흥덕왕 5년(830)	滄州神鑑	法諒 등	
玄昱	헌덕왕 15년(824)	희강왕 2년(837)	章敬懷暉	審希	鳳林山門
慧徹	헌덕왕 6년(814)	신무왕 원년(839)	西堂智藏	□如 道詵	桐裏山門
體澄	희강왕 2년(837)	문성왕 원년(840)		英惠 등	迦智山門
無染	헌덕왕 13년(821)	문성왕 7년(845)	麻谷寶徹	詢乂 大通 麗嚴 등	聖住山門
梵日	흥덕왕대	문성왕 9년(847)	鹽官齊安	開淸 行寂	崛山門
道允	헌덕왕 17년(825)	문성왕 9년(847)	南泉普願	折中	獅子山門
大通	문성왕 8년(846)	경문왕 6년(866)	仰山慧寂	融奐 眞胤	聖住山門
行寂	경문왕 10년(870)	헌강왕 11년(885)	石霜慶諸		崛山門
迥微	진성여왕 5년(891)	효공왕 9년(905)	雲居道應		迦智山門
麗嚴		효공왕 13년(909)	雲居道應		聖住山門
慶甫	진성여왕 6년(892)	高麗太祖 4년(921)	疎山匡仁	泉通 玄可	桐裏山門
璨幽	진성여왕 6년(892)	高麗太祖 4년(921)	投子大同	昕弘 등	鳳林山門
玄暉	효공왕 10년(906)	高麗太祖 7년(924)	九峰道乾	闍行 등	聖住山門
兢讓	효공왕 원년(897)	高麗太祖 7년(924)	谷山道緣	迥超 등	曦陽山門
順之	헌안왕 2년(858)	미상	仰山慧寂		
利嚴	진성여왕 10년(896)	효공왕 15(911)	雲居道應		須彌山門
慶猶	미상	효공왕 2년(908)	雲居道應		

그들의 입당연대와 귀국연대, 전법사승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다. 그런데 도선의 경우, 그와 관련된 가장 신뢰할만한 기록인 최유청 찬술의 도선비에는 이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할만하다. 결국 도선이 입당하지 않았기에 그렇게 기록된 것이다. 그렇다면 김위제(金謂禪)·김관의(金寬毅)가 도선(道詵)의 입당(入唐)·일행사사설(一行師事說)을 왜 주장하였을까 하는 점이 궁금하다.

그런데 김위제(金謂禪)는 숙종(肅宗)에게 남경천도를 건의하였다. 그런데 숙종은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여 조카 헌종을 밀어내고 왕위에 올랐던 인물이다. 따라서 숙종의 즉위에는 적지않은 문신들의 반발이 뒤따랐다. 숙종은 이러한 문신들의 반발을 억제하기 위한 방

도로 김위제로 하여금 남경천도를 주장하게 하였던 것이다. 천도는 문신들의 세력근거지를 박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김위제(金謂礪)는 이러한 숙종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등의 남경천도를 강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도선의 풍수지리설을 이어 받았고, 도선은 중국 풍수지리설의 대가인 일행에게 전수받았다고 한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김위제가 도선이 일행의 풍수지리설을 전수받았다고 하는 도선을 높이어 남경천도를 합리화시키고자 함이었다.

한편, 의종은 인종대 인주이씨, 정안임씨 두 외척세력의 득세로 인해 실추된 왕권을 회복하고자 한 왕이었다. 그가 불교, 풍수지리에 깊은 관심을 표시한 것도 그 일환이었다. 그는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 유교보다는 불교, 풍수지리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유교가 문신들의 이념적 기반이었음을 감안한다면, 그의 불교, 풍수지리에 대한 관심은 문신에 대한 견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러한 시기에 편찬된 김관의(金寬毅)의 편년통록(編年通錄)은 의종의 의도에 부합되는 것이었다. 김관의(金寬毅)는 불교와 풍수지리를 이용하여 왕건의 가계를 운색하였을 뿐 아니라 고려왕실의 신성함을 강조했던 것이다. 따라서 김관의(金寬毅) 역시 도선(道詵)의 입당(入唐)과 일행사사설(一行師事說)을 주장함으로써 도선을 이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가 도선(道詵)의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을 높이기 위해 도선의 입당(入唐)·일행사사설(一行師事說)을 주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입당부인설(入唐否認說)

우리는 앞에서 도선이 당나라에 들어가서 일행(一行)의 풍수지리설을 배웠다고 주장한 기록들을 검토해 보았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도선의

입당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기록들이 있어 주목된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도선에 관한 가장 구체적인 기록으로 알려져 있는 고려중기 의종대 최응청(崔應淸)이 쓴 선각국사추봉교서(加封先覺國師敎書)와 최유청(崔惟淸)이 찬술한 도선비문(玉龍寺先覺國師證聖慧燈塔碑)이 있다. 다음이 그것이다.

C) 왕사 모는 나면서부터 큰 뜻이 있어 세상에서 法器라고 일컬었다. 묘한 근원을 性海에서 찾아 空門에 막히지 않았고 眞印을 禪林에서 얻어 스스로 묘한 뜻에 통달하였다. 깊고 묘한 것은 이미 佛祖에 지극하였고, 나머지 일로는 더욱 陰陽學에 정통하였다. 신비한 術法을 장차 전수받게 되었으니,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찾아와 친견하게 되었고, 여섯 가지의 신통력이 막히지 않아 大地를 묘하게 보아 빠짐이 없었다.

(崔應淸, 『玉龍寺王師道詒加封先覺國師敎書』, 『東文選』27)

D) 국사의 휘는 도선이요, 속성은 김씨이며, 신라국 영암사람이다. 그 선대의 가계와 부조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상실되어 전하는 것이 없다. 혹은 그가 신라 태종무열왕의 서손이라고도 전한다. (중략) 월유산 화엄사에 가서 출가하고 불경을 배우게 되었는데, 한 해도 채 못되어 불교의 대의를 통달하여 문수의 미묘한 지혜와 보현의 법문도 모두 깊이 깨달았으니 여러 학도들이 놀라고 귀신같은 총명이라고 찬찬하였다. 문성왕 8년(846) 도선의 나이 20살이 되었다. 문득 생각하기를 “대장부가 마땅히 법을 떠나서 고요히 살아야 할 것인데, 어찌 문자에만 열심히 종사할 것인가?”라고 했다. 때마침 혜철대사가 서당지장대사에게 심인을 저해 받고 동리산에서 법석을 여니 법을 배우려는 사람이 많이 모였다. 대사가 선문에 나아가서 제자 되기를 청했다. 혜철대사가 그의 총명함을 가상히 여기고 지성으로 가르쳤다. 무릇 소위 말해서 “설함이 없는 설법과 무법의 법”을 가르

치니 확연히 깨달았다.

(중략) 처음 스님께서 옥룡사에 자리 잡지 아니하고, 지리산 구령에 암자를 짓고 주석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이상한 사람이 찾아와 좌하(座下)에서 스님께 여쭙어 이르기를, “제자는 세상 밖(物外)에서 깊이 숨어서 살아온 지가 벌써 수백 년에 가깝습니다. 조그마한 기술(技術)이 있어 높은 스님에게 받들어 올리려 하오니, 만약 천술(賤術)이라 하여 비루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면 다른 날 남해(南海)의 바닷가에서 마땅히 알려 드리겠사오니, 이것 또한 대보살이 세상을 구제하며, 중생을 제도하는 법이옵니다.”라 하고 홀연히 어디론가 사라졌다. 스님께서 기이하게 여겨 약속했던 곳으로 찾아가서 과연 그 사람을 만났다. 그는 곧 모래를 끌어 모아 산천에 대한 순역의 형세를 만들어 보여 주었다. 돌아다보니 그 사람은 이미 없었다. 그곳이 현재의 구례현 경계 지점이니, 그 지방 사람들이 사도촌(沙圖村)이라고 일컫는다. 이로 말미암아 스님은 스스로 홀연히 깨닫고, 더욱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술법(術法)을 연구하였다. 비록 金壇과 玉笈 등, 깊고 오묘한 비결들을 모두 胸中에 담았다.

(崔惟淸 撰, 玉龍寺先覺國師證聖慧燈塔碑)

C)는 최응청(崔應淸)이 의종(毅宗)의 왕명(王命)으로 작성한 옥룡사 왕사도선가봉선각국사교서(玉龍寺王師道詒加封先覺國師敎書)이며, D)는 최유청(崔惟淸)이 의종의 왕명(王命)을 받아 지은 옥룡사선각국사증성혜등탑비(玉龍寺先覺國師證聖慧燈塔碑)이다. 위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최응청과 최유청은 도선의 입당(入唐)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들은 도선이 국내에서 남종선(南宗禪)과 강서지법(江西之法)의 풍수지리설을 전한 동리산문의 개산조사인 혜철에게 선승으로 인가를 받았고, 국내 지리산의 신이한 사람(異人)에게 풍수지리설을 습득했다고 하였다.



사진 2 광양 옥룡사 동백나무 숲길(문화재청)

도선비문을 지은 최유청은 과거시험에 합격한 인물이었으며, 유학자적 관료로서 평장사 등을 역임한 고위 관료였다. 그는 또한 불교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던 인물이었다. 유교적인 합리주의와 불교에 통달한 그였기에 승려인 도선비문을 짓기에 그 시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다고 생각된다.

최응청과 최유청은 별개의 인물이다.¹⁵⁾ 다만 최응청이 국왕의 교서를 작성했다는 점에서, 그 역시 불교와 유교에 능통한 인물이었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인물들이 도선의 입당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목되어 마땅하다.

도선의 국사 추증 교서와 비문은 모두 국왕(의종)의 명에 따라 도선을 높이자는 의도 아래 작성된 것이었다. 따라서 가능한 도선에 관한 모든 자료를 이용했을 것이며, 특히 그를 높이는 기록을 빠뜨렸을 것 같지 않

15) 『고려사』 98 열전 11 제신 최기우전, 『고려사』 122 열전 35 환자 정함전

다. 그러한 기록에서 도선의 입당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도선의 입당에 관한 기왕의 견해가 믿을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결국 도선의 입당(入唐) 일행사사(一行師事)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도선이 입당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보아 좋을 것이다.

라말 여초에는 승려로서 입당하지 않고 국내에서 수학하여 전법을 사자 상승한 승려도 적지 않다. 이들 승려를 표로 정리해 보면 <표2>와 같다.

<표2> [나말여초 국내 수학 전법한 선종승려]

法諱	傳法師僧	傳法弟子	所屬山門
廉居	道義	體澄	迦智山門
□運	道義	玄讓 玄熙 등	迦智山門
秀澈	洪陟	飲光 등	實相山門
道憲	惠隱	楊浮 등	曦陽山門
允多	□如		桐裏山門
道詵	慧徹	慶甫	桐裏山門
審希	玄昱	景質 融體 등	鳳林山門
開淸	梵日	神鏡 등	崛 山門
折中	道允	如宗 등	獅子山門

위 <표2>에서 볼 수 있듯이, 라말여초에는 중국에 유학하지 않았으면서도 두드러진 활동을 했던 뛰어난 고승들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도선 역시 입당하지 않았으면서도 고승으로 명성을 떨쳤을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다. 도선이 광양 백계산 옥룡사를 중심으로 전남의 동부지역 여러 곳에 사찰을 세우고 후학들을 지도하였는데, 언제나 수백 명의 제자들이 모여 들었다고 한다. 그의 명망을 들은 헌강왕은 도선을 궁궐로 초청하여 법문을 듣기도 하였다. 그가 72세(898년)로 입적하자, 당시 국왕 효공왕이 왕명으로 요공선사(了空禪師)라는 시호(諡號)를 내리고 있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이제까지 도선(道詵)의 입당(入唐) 여부(與否)에 관한 여러 기록들을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도선의 입당은 도선(道詵, 827-898)과 일행(一行, 683-727)의 생물연대 차이를 고려할 때 믿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도선이 입당하여 일행(一行)에게 직접 사사(師事)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일행(一行)의 지리법(地理法)을 전수받았을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보았다. 당시 중국에 유학(遊學)한 선종승려들의 일반적인 수학행태(修學行態)나 사자관계(師資關係)가 드러나 있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그렇게 이해했다. 도선에 관한 가장 구체적이며 확실한 기록인 옥룡사왕사도선가봉선각국사교서(玉龍寺王師道詵加封先覺國師敕書)와 옥룡사선각국사증성혜증탑비(玉龍寺先覺國師證聖慧燈塔碑)에 그의 입당(入唐) 사실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도 그의 입당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입증(立證)해 준다.

도선의 입당·일행사사설(入唐·一行師事說)은 고려중기 숙종대(肅宗代) 김위제(金謂禪)가, 의종대(毅宗代) 김관의(金寬毅)가 주장한 것이었다. 김위제는 숙종에게 남경천도를 건의하였다. 숙종은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여 왕위에 올랐던 인물이다. 숙종은 문신들의 반발을 억제하기 위한 방도로 김위제로 하여금 남경천도를 주장하게 하였던 것이다. 김위제는 이러한 숙종의 요구에 부응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도선의 풍수지리설을 이어 받았고, 도선은 중국 풍수지리설의 대가인 일행에게 전수받았다고 한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김위제가 도선이 일행의 풍수지리설을 전수받았다고 하는 도선을 높이어 남경천도를 합리화 시키고자 함이었다. 숙종이 도선을 높이기 위해 대선사에서 왕사로 추봉한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한편, 의종대(毅宗代)의 김관의(金寬毅)도 도선입당(道詵 入唐)·일행사사설(一行師事說)을 주장하였는데, 그는 또『편년통록(編年通錄)』을 저술한 인물이기도 하다. 의종은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 유교보다는 불교, 풍수지리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편찬된 김관의(金寬毅)의『편년통록(編年通錄)』은 의종의 의도에 부합되는 것이었다.

김관의(金寬毅)는 불교와 풍수지리를 이용하여 왕건의 가계를 윤색하였을 뿐 아니라 고려왕실의 신성함을 강조했던 것이다. 따라서 김관의(金寬毅) 역시 도선입당(道詵入唐)·일행사사설(一行師事說)을 주장함으로써 도선을 이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도선의 풍수지리설을 높이기 위해 입당(入唐)·일행사사설(一行師事說)을 주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의종도 도선을 높이어 왕건의 탄생과 고려로의 통일을 예언하고 고려왕실의 신성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옥룡사선각국사증성혜등탑비(玉龍寺先覺國師證聖慧燈塔碑)」를 최유청에게 짓도록 했던 것이다.

결국 도선의 입당설(入唐說)은 도선을 높이기 위해 고려중기 이후 후대인들이 조작한 것이었다. 도선을 높이는 것은 그와 연결된 고려왕실(高麗王室)을 높이는 것이기에 도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그의 입당설(入唐說)을 유포했을 것으로 이해된다.

도선(道詵) 비문(碑文)의 찬술(撰述)과 도선비(道詵碑)의 건립(建立)

고승이 입적하면 그의 문도들은 사승(師僧)의 행장(行狀)을 정리하여 나라에 올린다. 그러면 국왕은 시문(詩文)을 잘 하는 유학자에게 명령하여 고승의 비문을 짓게 하고 아울러 시호(諡號)와 탑호(塔號)를 내리면서 비와 부도를 세우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도선(道詵)의 비(碑)는 그의 사후 274년이 지난 뒤에야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세워지게 되었다. 이는 고승들의 비문이 사후 얼마 지나지 않아 찬술되어지고 비가 세워지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도선의 법제자(法弟子)인 경보(慶甫)의 경우도 고려초에 고려왕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활동하고 있었고, 경보의 비문은 사후 바로 찬술되어 곧이어 비가 세워졌던 것에 비해, 도선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도선비문(道詵碑文)을 찬술한 최유청(崔惟淸)에 따르면, 일찍이 통일신라 효공왕대(孝恭王代)에 박인범(朴仁範)에 의해 비문이 지어졌으나 세워지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도선의 사후 252년이 지난 의종대에 이르러 최유청에 의해 비문이 다시 찬술되었고 또 다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비가 세워지게 되었다. 박인범이 쓴 도선비문은 오늘날 전해지지 않아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도선에 관한 가장 믿을만한 자료는 의종대(毅宗代)에 최유청이 찬한 도선비문이라고 한다.

도선의 비문에 대한 연구로는 이마니시 류(今西 龍)의 논문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는 왕건과 도선과의 관계를 주로 언급했다.¹⁶⁾ 비문이 쓰여질 당시의 정치상황, 불교계 동향 등은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 도선비에서 보다 중요한 점은 270여 년 동안이나 세워지지 않았던 그 비문이 왜 의

16) 今西龍, 「옥룡사선각국사비명에 대하여」(『高麗史研究』, 近澤書店, 1944)

종대에 찬술되었으며, 또 곧바로 세워지지 않고 있다가 명종대에 이르러서야 건립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필자는 도선비를 누가, 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찬술하고 세웠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최유청의 도선비문 찬술의 경위를 그 시기 정치상황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도선비의 건립과정도 의종·명종대의 정치상황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가 인종대에서 명종대 초기의 정치상황을 이해하는데 적지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의종대(毅宗代) 도선(道詵) 비문(碑文)의 찬술(撰述)

도선비문의 찬술과 그 경위에 대해서는 동 비문에 자세히 밝혀져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임금(고려 의종)이 즉위한 지 4년(1150)이 되는 10월 신유일에, 신 유청(惟淸)에게 분부하기를, “생각건대 선각국사의 높은 도덕이 장하여 국가에 공업(功業)이 가장 깊으므로, 우리 선왕께서 여러 번 봉증(封贈)을 더하여 극도로 존중하였으나, 그 행적을 지금까지 문장으로 전하지 못한 것을 짐(朕)은 부끄럽게 여기는 바이다. 인고(仁考, 부왕 인종)께서 벌써 너에게 비명을 지으라는 명령이 계셨으니 공경히 할지어다.”하셨다.

B) 신이 이 분부를 듣고 황송히 여기고 집으로 물러나와, 그 초고를 만들어 그 사실의 상세한 것을 얻어, 이제 차례대로 기록한다.

이에 따르면, 도선에 대한 봉증은 여러 차례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비문이 찬술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긴 의종의 명에 따라 의종 4년

(1150) 10월 최유청이 찬술하기 시작한 것으로 되어있다. 아울러, 위의 기록은 인종대에 이미 최유청에게 도선비문을 지으라는 명이 내려졌음을 알려준다. 도선비문의 찬술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종의 명에도 불구하고 비문이 찬술되지 못한 이유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나 서술의 편의상 여기에서는 우선 의종이 최유청에게 도선이 비문을 찬술하도록 명한 까닭부터 검토해 보기로 하자.

의종이 도선비문 찬술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의종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종의 뒤를 이어 즉위한 의종은 인종의 장자로서, 인종 21년에 태자에 책봉되었다. 그의 어머니는 공예태후 임씨였다. 공예태후에게는 의종 외에도 네 사람의 아들이 있었는데, 대령후 경(大寧候 暲)과 후일 명종이 된 익양후 혼, 원경국사 충희, 그리고 후일 신종이 된 평량후 민 등이 그들이다. 공예태후 임씨는 정안임씨 임원후의 딸이었다. 정안임씨는 인주이씨 몰락 이후 유일한 외척세력이었다. 인주이씨의 득세 이후 왕권은 외척세력에 의해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한 사정을 국왕인 인종이나 태자였던 의종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외척을 견제하려 했을 것임은 쉽게 짐작된다. 의종은 자신의 혼인에 있어서도 외척으로서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가문을 택하여 혼인하였다. 외척의 발호를 견제하여 왕권의 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이 의종의 의도였지 않았는가 한다.

의종이 외척세력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의종과 정안임씨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의종에게 정안임씨는 경계의 대상이었을 것이며, 정안임씨 역시 그러한 의종을 달가와 했을 까닭이 없다. 정안임씨인 공예태후가 대령후 경을 사랑해서 그를 태자로 세우려 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짐작이 된다. 이와같이 태자 시절 의종의 정치적 지위는 불안할 수 밖에 없었다.

의종이 태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정습명의 노력에 크게 힘입었다. 정습명의 배후에는 김부식이 도사리고 있었다. 의종이 태자

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김부식 세력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정안임씨의 지지를 받지 못한 의종은 외가(外家)와 다른 정치세력의 비호를 필요하였을 것이다.

대령후 경 사건은 정안임씨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된 사건이었다.¹⁷⁾ 의종 5년 윤4월(고려사절요 11) 피해를 당한 인물이 모두 정안임씨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인물이었다. 이 사건은 의종의 측근세력과 정안임씨의 갈등이 빚어낸 결과였다.

의종은 왕권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외척세력에 대한 견제에는 성공했지만, 문신 모두를 장악할 수는 없었다. 문신들의 정치적 지위는 국왕의 왕권강화를 용납하지 않을 정도로 이미 성장해 있었던 것이다. 의종은 문신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적지않은 노력을 기울였다.

즉위 이후의 의종은 문신들과 적지않은 갈등을 일으켰다. 의종은 태자 시절에도 태자 지위의 보전도 어려웠다. 반발하는 문신들이 많았던 것이다. 의종은 태자로 있을 때에도 그 지위가 위태로울 정도로 문신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는 곡절 끝에 즉위했던 것이다. 아버지 인종과 어머니 정안임씨의 신임까지도 받지 못했다. 중신 정습명의 보증 끝에 즉위할 수 있었다. 의종은 즉위 초에 유교적인 고위 문신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의종은 문신들이 아닌 무신들과 연결되고자 하였다. 그는 풍수지리, 음양비술에 귀기울였다. 사원에도 자주 행사하여 불교에도 남다른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의종은 합리적인 면보다는 신이한 면을 추구했다. 문신들과 덜 밀착되었을 불교, 풍수지리, 음양비술 등에 관심을 쏟고 있었다.

한편 의종대에 『상정고금예문(詳定古今禮文)』이 찬술되었다. 의종이

17) 金塘澤, 「高麗 毅宗代의 정치적 상황과 武臣亂」(『震檀學報』 75, 1993년, 41쪽)

그와 정치적으로 밀착되었던 최윤의 등으로 하여금 의종 9년(1155)에서 16년(1162) 사이에 『상정고금예문』을 편찬하도록 하여 백관과 구분되는 국왕의 권위를 분명히 드러내도록 하였다.¹⁸⁾ ‘예’는 국가의 질서체계 확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관료들과는 다른 국왕의 권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왕권 강화를 도모했다. 또한 김관의가 『편년통록』을 지어 왕건(王建)의 세계(世系)를 구성했다. 의종이 김관의에게 『편년통록』을 짓게 함으로써 불교, 풍수지리설 등 신이한 면을 강조하여 왕권강화의 밑받침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¹⁹⁾

유학은 문신들의 정신적 지주였으며, 그들의 정치이념에 다름 아니었다. 의종은 즉위 초에 문신들에게 벗어나기 위해 유학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의종은 풍수지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문신들을 견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였다.

한편 도선비문(道詵碑文)의 찬술자인 최유청은 과거시험에 합격한 유학자로 경연에서 『서경(書經)』을 강하기도 했다.²⁰⁾ 경연에서 유교 경서를 강의할 정도로 학식이 풍부하고 국왕이 신임할 정도의 학자였는데, 그는 불교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다. 최유청이 1170년에 일어난 무신의 난 이전에 중서시랑평장사로 고위 문반직에 있었으나, 무신란 이후 건재한 것은 대령후 경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이 무신란 이후 정계에 등장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최유청은 유학자이며, 의종과 밀착될 수 있는 인물이었다. 최유청이 도선비문의 찬술하게 된 것은 의종의 의도와 부합되는 면이

18) 김당택, 「상정고금예문의 편찬시기와 그 의도」, 『호남문화연구』 21, 1992, 11-12쪽

19) 하현강, 「고려 의종대의 성격」, 『동방학지』 26, 1981; 한국중세사연구 일조각, 1996, 409-413쪽)

20) 『고려사』 세가 17, 의종 1년(1147) 7월에 “갑자(甲子)에 한림 학사(翰林學士) 최유청(崔惟淸)에게 명하여 《서경(書經)》의 〈열명(說命)〉 3편(篇)을 강독(講讀)시키고, 우사간(右司諫) 최재(崔粹) 등에게 명하여 청강(聽講)하게 하며, 우사간(右司諫) 이원응(李元膺)에게 명하여 문난(問難)하게 하였다”고 하였다.

있어 가능했던 것이었다.

도선의 비문은 도선의 생애와 선종, 도선과 풍수지리설, 도선과 왕건과의 관계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고승의 비문은 일반적으로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고승의 불교적 위치, 생애, 명의 순서로 서술되어 있다. 도선비의 구성은 일반적인 승려비의 구성과 다른 이례적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목된다.

한편, 도선은 왕건의 탄생과 삼한통일을 예견했다. 그는 왕건을 미화하는 장본인이 되기에 적합한 인물이 되었다. 그러한 도선이었기에 국왕의 입장에서는 도선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선을 높이는 것은 고려 왕실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되었다. 그 점은 바로 의종의 왕권 강화와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다. 최유청에게 도선의 비문을 찬술케 한 것도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앞서 우리는 인종대 왕명에도 불구하고 비문이 찬술되지 못한 이유를 보류해 놓았다. 이제 이에 대한 설명이 가능할 것 같다. 인종은 즉위 5년부터 서경천도를 기도했으나 실패했다. 서경천도는 인종이 개경을 벗어나 서경을 중심으로 왕권을 강화하자는 것이었다. 도선비문의 찬술도 이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도선의 계승자임을 자임(自任)했던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의 실패로 도선비문 찬술도 미루어졌다. 다시 의종대에 이르러 재차 최유청에게 비문을 짓도록 하명되었던 것이다.

최유청이 어떠한 사람인지 관련 사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 최유청(崔惟淸)의 자(字)는 직재(直哉)요 창원군(昌原郡) 사람이다.

(중략) 최유청이 어려서 아버지를 잃었으나 학문을 즐겨하여 예종 때에 등제(登第)하고 이에 말하기를,

“유자(儒者)는 마땅히 옛을 배워 벼슬에 들어갈 것이라.”

하고 드디어 문을 닫고 글을 읽어 사환(仕宦)을 구하지 않았으며 천거하는 자가 있으면 학문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사양하다가 뒤에 천거

함을 입어 직 한림원(直翰林院)이 되었다.

D) 의종(毅宗) 초에 지주사(知奏事)에 승진하니 출납(出納)에 오직 성실하므로 갑자기 중서 시랑(中書侍郎) 등 중서문하 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 판병부사(判兵部事)에 나아갔다. 때에 낭중(郎中) 정서(鄭紱)가 음(陰)으로 대령후(大寧侯)와 결탁함에 연좌되어 외지로 귀양을 보내는데 최유청은 정서의 매서(妹)라 정서가 대령(大寧)을 향연하는 데에 기명(器皿)을 빌려 주었으므로 대간이 탄핵하기를 대신(大臣)의 체모를 잃었다고 하여 남경 유수사(南京留守使)로 폄출하였다. 이어 충주(忠州)·광주(廣州) 두 주(州) 목사(牧使)로 폄출하매 비록 오래 외직(外職)에 머물렀으나 처하기를 의연히 자처하니 임금이 충직하여 다른 마음 없음 깨닫고 다시 평장사(平章事)를 제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저지하는 자가 있는지라 이에 수사공(守司空) 좌복야(左僕射)로 치사(致仕)하게 하였다. 정중부(鄭仲夫)의 난리에 문신(文臣)이 다 살해를 당하는데 여러 장수가 평소에 최유청의 덕망에 심복한지라 군사를 경계하여서 그 집에 들어가지 말게 하였으며 기공(期功)의 친척에 이르기까지 함께 화를 면하였다.

E) 명종(明宗)이 즉위하매 최유청은 덕망이 높은 사람[宿德舊望]이라 하여 중서 시랑 평장사(中書侍郎平章事)를 제수하고 이어 수사공 집현전대학사 판예부사(守司空集賢殿大學士判禮部事)를 삼고 치사(致仕)하게 하였는데 <명종> 4년에 죽으니 나이 80세였다. 문숙(文淑)이라 시(諡)하였다.²¹⁾

21) 『고려사』 열전 12 최유청(崔惟清)傳

최유청의 관력(官歷)

시기	관직	전거
예종대	登第 천거로 직한림원	최유청전
	이자겸 집권으로 실직	
	내시	
	좌사간	
	상주군수	
	시어사	
	어사중승	
	전중소감	
인종 10년(1132) 2월	호부원외랑	
인종 20년(1142) 10월	간의대부(금에 책명사신)	
	호부시랑	
	동북면병마부사	
	승선	
의종초	지주사	
의종 1년(1147) 7월	한림학사	
의종 1년(1147) 7월	어사대부 동지추밀원사	
의종 2년(1148) 3월	지추밀원사 판삼사사	
의종 2년(1148) 12월	병부상서	
의종 3년(1149) 9월	지문하성사	
의종 3년(1149) 12월	참지정사판상서형부사	
의종 4년(1150) 12월	중서시랑평장사	
의종 5년(1151) 4월	판병부사	
의종	남경유수사/충주	
의종 15년(1161) 5월	봉원전대학사	
의종 15년(1161) 12월	중서시랑평장사 치사	
명종 2년(1172) 6월	집현전대학사판예부사	
명종 4년(1174) 12월	중서시랑평장사 치사졸	

F) 어려서부터 늙게까지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고 경(經)·사(史)·자(子)·집(集)에 해박하여 통하지 않음이 없고 또 불법(佛法)을 몹시 좋아하여 날로 불경을 독송하니 이르는 곳마다 학생과 사문(沙門)으로 질문하는 자가 모여들었다. 일찍이 조서를 받들어《이한림집(李翰林集)》을 편찬하고《유문사실(柳文事實)》을 주(註)하니 임금에 보시고 가상히 여겨 판에 새겨서 전하게 하였다. 또 지은 바 문장 수 백편과《남도집(南都

集》이 있었다.

의종은 문신들을 견제하기 위해 문신들의 이념(이론적인 기반)인 유학에 비판적인 불교, 풍수지리설, 음양비술 등에 관심을 가졌다.

도선과 고려왕실의 밀접한 관계를 부각시켜 고려왕실의 신성성, 정당성을 고양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면에 도선은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도선을 부각시켜 의종대 왕실의 권위를 높이려 했던 것이다.

명종대(明宗代) 도선비(道詵碑)의 건립(建立)

의종대 최유청에 의해 도선비문 찬술되었으나 건립되지 못했다. 대령 후 경 사건으로 최유청이 좌천되었고 의종의 측근 정서도 유배를 떠나게 되어 도선비를 세울 수 없게 된 것이다. 의종대 문신들의 반발로 비문이 세워지지 못했다. 의종은 어찌하는 수 없이 문신과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의종은 문신들과 더불어 잔치를 벌이며 유흥행사를 하면서 시문을 짓도록 하였다. 이에 문신들은 의종에게 태평호문지주(太平好文之主)라 칭송하였던 것이다. 의종은 즉위 초기에는 무신들과 격구 행사를 자주 갖는 등 무신들과 가까웠으나 후에 문신들과 가까와지면서 무신에 대한 차별대우로 무신의 난이 일어나는 요인을 만들었다.

도선비는 무신의 난이 일어난 직후 명종 2년(1172) 10월 마침내 광양 옥룡사에 세워지게 되었다. 명종 1년 건비운동이 일어나고, 동왕 2년 음기를 추가한 비문을 완성하여 건비(建碑)하게 된 것이다. 비음기의 내용은 찬술연대는 의종 4년(1149년) 10월- 그 다음해 7월에 완성되었다.

비문을 지은 찬술자는 최유청이었고, 글씨 쓴 이(書者)는 정서(鄭敼, 최유청의 처남)였으며 건비에 관련된 승려는 도선의 불교를 계승한 불교 승려들이었다.

건비에 얽힌 사정은 의종 5년(1151) 최유청(崔惟淸)과 정서(鄭絃)가 대령후(大寧候) 경(曠)이 참소(讒訴)를 입는 왕실(王室)의 음모사건(陰謀事件)에 연루되어 최유청은 지방으로 좌천되어충주목사, 경주목사로 전전하게 되었다. 정서는 경상도 동래(東來)로 장류(杖流)되었다. 이 사건으로 비석은 세워지지 못하고 개경 국청사 뜰에 20여년 방치되었다, 무신의 난 직후 명종 2년(1172)에 도선비는 광양현의 세공선으로 옥룡사에 옮겨져 세워지게 되었다.

음기 기록자도 禮部尙書 致仕의 崔惟淸. 雲巖寺 住持重大師 志文 옥룡사파 正孫 10인- 重大師(松林寺 住持 迥均, 玄岬寺 住持 旼彦, 之曉, 志淵, 彥宣, 宗純, 處靈) 大師(慧溫) 大德(惠資, 惠儀) 으로 기재되어 있다.

고려 중기 도선의 직계는 옥룡사 주지 지문(志文) 등 10여인으로, 옥룡사, 운암사, 미우사, 도선사, 삼국사, 송림사, 현감사 등 광양과 구례 등 전남 동부지역의 불교를 장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무신의 난 이후 무신도 왕실을 이용하고자 했다. 그들은 사직의 보전을 명분으로 그들의 쿠데타를 정당화하고자 했다. 무신들은 사직 받들기를 내세워 그들의 권력쟁탈에 이용했던 것이다. 무신들은 고려왕실을 높이하고자 했다. 도선비를 건립하여 불안을 해소하고자 했다. 도선은 고려왕실을 미화시키는 장본인으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무신정권에 의한 도선비의 건립은 왕실을 높이려는 의도였다. 도선비문의 찬술과 건립은 고려왕실의 권위를 높이려는 국왕과 그의 측근 인물과 도선직계의 협동의 소산이었다.

지눌의 정혜쌍수와 나옹의 동방제일도량 송광사

불교는 삼보요, 삼학이다

불교는 부처의 가르침이다. 부처는 분다(Buddha)에서 온 말로 깨달은 자란 뜻이다. 깨달은 사람의 가르침이 불교인 것이다. 불교에는 세 가지의 보배가 있다. 삼보라고 하는데, 불·법·승이 그것이다. 부처와 부처의 가르침과 승가이다. 승가는 상가(Sangha)의 음역인데, 걸사(乞士: 빌어 먹는 사람들)의 뜻이다. 부처와 그의 제자들이 새벽에 마을을 돌며 탁발을 해서 식사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었다. 남방의 불교국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태국·미얀마·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사찰에는 공양간이 없다. 승려들이 가사를 입고 맨발로 열을 지어 마을로 가서 탁발을 하여 공양물을 얻어온다. 이것으로 승려들이 공양도 하고, 불우 시설에 음식을 보내기도 한다고 한다. 불교의 삼보는 불자들의 신앙의 대상으로서 그 요체가 되고 있다.

불교에서는 삼보와 더불어 삼학이 중요시 되고 있다. 깨달음의 종교인 불교에서는 깨닫기 위해서 세 가지 분야의 공부를 해야 한다. 계율·선정·지혜가 그것이다. 계율은 5계·10계 등 불자가 지녀야 할 규칙으로 권선적인 것과 금지적인 내용으로 되어있다. 삼학 중의 으뜸이 계율이라고 할 정도로 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선정은 참구선정(參究禪定)과 관련시켜 이해했으면 한다. 참선 등 불교수행의 실천적인 면을 말한다. 지혜는 불교의 지혜로 불교의 이론적인 교리공부, 즉 경전공부 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자면 불교의 삼학은 계율을 바탕으로 하면서 불교의 실천적인 면과 이론적인 면을 공부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불교는 불법승의 삼보를 신앙하면서 계·정·혜의 삼학을 공부하여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고자(離苦得樂) 하는 종교이다.

송광사의 보조지눌은 정혜쌍수를 제시하면서 정혜결사를 이끌었다

불교수행의 요체인 계·정·혜의 삼학의 실천에 앞장 선 승려는 고려 후기 정혜쌍수를 제시하면서 정혜결사를 이끈 조계산 송광사의 보조지눌(1158-1210)이었다.

보조지눌의 정혜결사의 사회적 배경이 되는 고려중기 무신의 난(1170) 이후 불교계는 이전의 불교에 대해 반성하면서 자체적으로 커다란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무신의 난 이후 불교계의 주목할 만한 현상은 지방에서의 불교개혁적인 신앙결사의 유행이었다. 이것은 개경중심의 귀족적인 체제유지적인 타락한 불교에 대한 강렬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고려후기의 대표적인 불교개혁적인 신앙결사운동은 조계종의 수선사(修禪社)와 천태종의 백련사(白蓮社)가 대표적인 존재였다. 수선사는 조계산 송광사를 중심도량으로 한 정혜결사였으며, 백련사는 강진 만덕사를 근본도량으로 한 법화결사였다. 수선사와 백련사는 한반도의 남부 지방인 순천·강진에서 당시의 세속적인 불교를 질타하면서 불자의 본래적인 면목을 되찾으려는 불교개혁의 가치를 높이 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불교개혁운동은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서로 다른 성격의 신앙결사를 조직하여 쌍벽을 이루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수선사의 개창자는 지눌이었다. 그는 경전 읽기 등 이론불교에 치우친 교종승려들을 견해자(乾慧者)라 비판하는가 하면, 참선에 치우친 선종승려들을 치선자(痴禪者)라 비판하였다. 그는 불교 공부의 핵심적인 두 요소인 선정(禪定: 參禪)과 지혜(智慧: 看經)을 함께 닦자는 의미의 정혜쌍수를 깃발을 들고 선정을 익히고 지혜를 고르게 하자는 습정균혜(習定均慧)의 정혜결사(定慧結社)를 추진하였다. 이것은 종파 사이의 대립·명예와 이익에 집착하는 당시 불교계에 대한 일대 혁신적 불교개혁운동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

다. 정혜결사의 바탕이 되는 이론이 돈오점수설(頓悟漸修說)인데, 돈오는 인간의 본래 면목은 부처와 조금도 다름이 없기 때문에 돈오라고 하며, 비록 돈오하여도 묵은 습관은 갑자기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점수라는 종교적 실천이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눌은 이러한 돈오점수설에 입각한 정혜쌍수를 성적등지문(惺寂等持門)이라고 하고 있으며, 지눌은 다시 화엄사상을 도입하여 원돈신해문(圓頓信解門)을 세워서 화엄과 선이 근본에 있어서는 둘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지눌은 이러한 기초 위에 지혜(智慧)의 장애를 완전히 떨쳐 버리기 위해 간화선(看話禪)을 받아들여 간화경절문(看話徑截門)을 세워 선문(禪門)의 활구(活句)를 참구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지눌의 사상은 교선의 절충적 단계를 뛰어넘은 교선일치의 독특한 철학체계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지눌의 뒤를 이은 수선사의 제2세 혜심(慧諶)은 화순 출신으로 지눌의 선사상을 계승하여 간화선을 적극적으로 고양하여 선우위의 새로운 불교로 이끌었다. 또한 혜심은 간화선의 선양과 함께 유·불일치설을 내세워 유교와 불교의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사상적 경향을 보여 주었다. 그는 유·불의 조화를 추구하되, 어디까지나 불교가 주체가 된 불교 위주의 해석을 모색하고 있어 조선시대의 불교계의 유불일치설과는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여 주었다.



사진 1 염재거사 송태회(1872-1942)가 쓴 목우자 보조지눌의 유품을 계승한 송광사의 수행가풍을 의미하는 현판

한편 수선사의 제6세인 충지(沖止, 1226-1293)는 장흥 출신인데 그의 불교는 고려 중기의 선의 전통을 강조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는 순천 정혜사(定慧寺)의 창건자인 혜소국사의 공적을 찬양하고 그의 선풍이 제3세 몽여(夢如)·제4세 혼원(混元)을 거쳐 자신에게 전승되었음을 감사하고 있었다. 예종대의 혜소국사의 선은 고답적이며 귀족적인 경향으로 개인적인 수업형태를 중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선의 전통을 강조한 충지의 불교는 지눌의 불교와 비교할 때 확실히 변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원의 고려 내정 간섭기인 충지 이후의 수선사의 전개과정은 자료의 결핍으로 구체적으로 살피기 어려우나 당시 불교계 상황과 관련시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고려후기 불교에서도 교선일치사상이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면서 그것은 선종의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였고, 시대가 내려가면서도 그러한 경향은 지속되었다. 우선 임제종(臨濟宗)을 연 나옹혜근(懶翁惠勤)의 사상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옹은 성(性: 본체 중시)과 상(相, 현상 중시)은 물론 교(敎)와 선(禪)을 융합하려 했는데, 그 주체로서 선종의 입장을 뚜렷이 하였다. 선종의 입장에서 성종(性宗)과 상종(相宗) 사상을 모두 아우르려는 나옹혜근의 사상은 법안종(法眼宗) 사상과 비슷한 면을 지녔지만, 그것과 맥이 닿는 것은 아니다. 고려후기 불교사상도 교와 선의 융합 내지 일치를 끊임없이 시도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선종의 입장이 중심이 되었다. 이와 같이 선종이 등장하여 계속 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무신의 난 이후 무인중심으로 고려사회가 재편되어 새로운 지배세력이 등장한 사실과 연관시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고려시대에 불교사상과 유교사상은 서로 모순되면서 대치된 것은 아니다. 유학자들도 불교사상에 대한 조예를 갖고 있었다. 성리학이 유교적 정치이념으로 수용되는 단계에 있어서도, 불교와 전면적으로 대결하였다고 보다는 오히려 공존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고려시대를 통해

불교교단의 폐단을 지적하기는 하지는, 그 사상 자체를 비판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성리학이 수입되는 고려 후기 사회에 유학자는 물론 승려들까지도 불교와 유학을 아울러 이해하려고 하였다.

교선융합의 새로운 불교사상을 전개시킨 조계종은 보조지눌에 의해 개창되지만, 사실 그 사상의 윤리적 체계를 수립한 승려는 그의 제자인 화순 출신의 진각국사 혜심이었다. 그런데 그의 사상은 유교는 물론 심지어 도가사상까지도 불교사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고려 말 동방제일도량 송광사

고려 중기 이래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불교계를 주도한 승려는 조계산 송광사의 수선사(修禪社)계 승려였다. 송광사는 이른바 16국사를 배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려 말 조선초에 이르러 나옹혜근과 그의 문도들이 송광사 주지를 역임하는 등 조선초 불교계를 주도하였다.

특히 나옹혜근은 송광사와 인연이 깊다. 나옹혜근의 탐비에 따르면, 고려 말 공민왕이 1371년 8월 26일 왕사로 책봉된 나옹혜근을 송광사에 주석하도록 명하고 있다. 송광사가 동방의 제일 도량이므로 왕사인 나옹혜근의 주석처로 삼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²²⁾

당시 나옹혜근은 은사인 지공(指空)과 더불어 생불(生佛)이나 석가의 화신(化身)으로 추앙받고 있었다.²³⁾ 그가 당시 불교계를 이끄는 큰스님이었

22) 1371년(공민왕 20) 8월 26일에 공부상서(工部尙書) 장자온(張子溫)을 보내 친서, 인장, 법복, 발우를 내렸으며, ‘왕사(王師) 대조계종사(大曹溪宗師) 선교도총섭(禪敎都總攝) 근수본지(勤修本智) 중흥조공(重興조공) 복국우세(福國祐世) 보제존자(普濟尊者)’로 책봉하고, 송광사가 동방 제일의 도량이라고 하여 이에 주석하도록 명하였다(조명제 외, 『역주 조계산 송광사사고 인물부』, (혜안, 2007년, 173쪽)

23) 전 왕조 말경에 나옹(懶翁)이란 승려가 적멸(寂滅)의 교로써 어리석은 백성을 미혹하여 당시 사람들에게 생불(生佛)로 추대받아, 찬승(千乘)의 존엄을 굳혀 천한 필부(匹夫)에 대하여

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위상은 조선 초기에도 계속 되어졌다. 불교계 통폐합을 시도하면서 억불정책을 폈던 조선 태종도 지공과 나옹혜근을 대표적인 고승으로 지목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공민왕이 나옹혜근을 왕사로 임명하면서 그의 주석처를 송광사로 정한 것은 당시 불교계에서의 송광사의 위상과 사격(寺格)을 높이는 것이었다. 송광사를 동방제일도량으로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여진다.

나옹혜근의 송광사 주석

나옹혜근은 1371년 8월 28일 시자 설악을 데리고 한 달 걸려 9월 27일 송광사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는 송광사에 머문지 1년여가 지난 1372년 가을 회암사로 옮겨가 은사 지공의 탑을 세우는 불사를 도모하였다. 1373년 8월 다시 송광사로 내려왔다.



사진 2 해강 김규진(1868-1933)이 쓴 송광사 현판

공민왕의 요청으로 다시 회암사로 올라와 소재도량을 건설하고 이듬해에 회암사 중수에 들어갔다. 그의 제자로는 무학자초(無學自超)·정지천(正智智泉²⁴) 등 수백 인이 있었다.

나옹혜근의 대표적인 계승자는 누구였을까? 그의 문도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았고²⁵, 그의 입적 당시 불교를 믿는 자가 나라 안에 반이나 되었다

부질없이 절을 한 일까지 있었으니, 이리하여 국세는 기울고 유도(儒道)는 쇠퇴되었습니다.(無名氏, 『關佛疏』 『東文選』 56)

24) 權近, 「용문사 정지국사비」, 『조선금석총람』 下

25) 나옹혜근의 문도가 수백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權近, 「우야운 상인에게 주는 후서」, 『陽村

고 할 정도였다.²⁶⁾

나옹혜근을 추종한 승려들은 종파를 떠나 매우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나 나옹을 계승한 문도는 선종 사굴산파 승려들이었을 것이다.

나옹의 대표적인 문도가 누구였는지는 다음의 글이 참고가 된다.

마침 나옹이 입적하였을 때 대중 가운데서 법사가 되었으며 무학초공(無學超公)과 아울러 일컬어졌다. 초공(超公, 무학자초)은 묘리에 통달하였고 대사(본적달공, 本寂達空)는 독실하게 실천하는 사람이다.²⁷⁾

위의 기록에서 무학자초는 묘리에 통달한 승려로서, 달공은 독실하게 실천하는 승려로서 나옹혜근의 대표적인 문도였음을 알 수 있다. 무학자초는 조선초기 불교계를 이끈 왕사로서 그의 문도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자초의 문도 가운데 상수제자(上首弟子로 알려진 승려는 함허기화(涵虛己和)였다.²⁸⁾

이와 같이 송광사는 고려후기에는 보조지눌의 정혜쌍수의 근본도량이었으며, 고려말 조선초기에는 나옹혜근의 동방제일도량으로서 불교계를 주도하는 사격(寺格)이 높은 사찰이었다.

集』15

26) 이색, 「향산 윤필암기」, 『목은문고』 2

27) 權近, 「達空首座 問答法語 序」, 『陽村集』 17

28) 獅巖采永, 「海東佛祖原流」, 『韓國佛教全書』 10

보성 천봉산(天鳳山) 대원사(大原寺)와 자진원오국사(慈眞圓悟國師) 천영(天英)

천봉산(天鳳山) 대원사(大原寺)와 아도화상(阿度和尙)

보성 대원사 들어가는 입구 가로수 길은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벚꽃 피는 봄철, 벚나무 터널길에 꽃비가 내리는 듯한 환상적인 길을 보기 위해 관광객이 몰려들기 때문이다. 그 길 끝나는 즈음에 티벳박물관이 들어서 있고, 우측으로 난 길을 따라 안쪽으로 발길을 옮기면 천봉산(天鳳山) 대원사(大原寺)가 자리잡고 있다.

천봉산 대원사는 전남 보성군 문덕면 죽산리에 위치하고 있다. 대원사를 품고 있는 천봉산(天鳳山)은 해발 609m 산으로 보성·화순·순천의 경계를 나누고 있다.

대원사는 503년(백제 무령왕 3) 신라에 처음 불교를 전한 아도화상(阿度和尙)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전한다. 6세기에 마한 땅이던지, 백제 영토이었을 보성 천봉산에 신라불교의 초전자(初傳者) 아도화상이 대원사를 초창했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는 깊이 헤아려 보아야 할 일이다.

대원사 홈페이지에 실린 창건연기의 내용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경상북도 선산군 모레네 집에 숨어 살면서 불법을 전파하던 아도화상에게 하룻밤 꿈속에 봉황이 나타나 말하였다.

“아도! 아도! 사람들이 오늘밤 너를 죽이고자 칼을 들고 오는데 어찌 편안히 누워 있느냐. 어서 일어나거라, 아도! 아도!” 하는 봉황의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떠 보니 창 밖에 봉황이 날개짓 하는 것을 보았다.

봉황의 인도를 받아 광주 무등산 봉황대까지 왔는데 그곳에서 봉황이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되었다. 봉황의 인도로 목숨을 구한 아도화상은 3달 동안 봉황이 머문 곳을 찾아 호남의 산을 헤매다가 마침내 하늘의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의 봉소형국(鳳巢形局)을 찾아내고 기뻐 춤추며 산 이름을 천봉산이라 부르고 대원사를 창건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대원사 창건연기설화는 원래의 사실이 그대로 전해지기는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다. 후대에 구전(口傳)으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탈락되기도 하고, 추가되는 것이 설화의 일반적 속성이기 때문이다. 아도 창건설을 내세우며 사찰의 입지 선정에 풍수지리설의 영향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럴듯하게 꾸며진 설화로 이해하여도 되지 않을까 한다.

이런 사찰창건 연기설화를 보다 단단하게 확인시켜주는 공간이 있어 주목된다. 언제 건립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개산조사(開山祖師)를 모시는 공간으로 아도영각(阿道影閣)이 극락전 우측에 자리 잡고 있다. 그 안에 아도대화상(阿度大和尚)의 진영(眞影; 초상화)이 봉안되어 있다. 사찰에서 방위의 기준은 주불전(主佛殿) 불상이 기준이기 때문에 극락전에



사진 1 아도영각

모셔진 아미타불의 우측에 아도화상을 모신 아도영각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해야 한다.

조선후기에 아르면 아도화상을 창건주로 내세우며 사찰의 창건연대를 위로 올리는 새로운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순천 조계산 선암사의 경우가 그러하다. 선암사 창건주를 18세기 초까지 선각도선(先覺道諶, 827-898)으로 기록해 오다가 19세기에 이르러 아도화상을 창건주로 내세우고 있다. 사찰의 창건연대가 신라하대 9세기에서 삼국시대 6세기로 올라가게 되고 새삼스럽게 아도를 중시하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천봉산 대원사의 개산조사(開山祖師)로 아도화상을 내세우는 경우도 이러한 경향과 무관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은 나만이 가지는 생각이 아닐 것이다.

고려후기 수선사(修禪社)

제5세 자진원오국사(慈眞圓悟國師) 천영(天英)

개산조당(開山祖堂) 아도영각(阿道影閣) 앞에 자진원오국사(慈眞圓悟國師) 부도(승탑)가 있다. 문화재 명칭은 대원사자진국사부도(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35호)이다.

이중(二重)의 방형지대석(方形地臺石) 위에 소판팔엽(素瓣八葉)의 복련(伏蓮)이 덮여 있으며, 그 밑에 팔각원당형(八角圓堂形)을 이룬 대석(臺石)에 두 줄의 선각(線刻)을 돌리고 그 속에 안상(眠象)이 아닌 사각형의 띠를 돌렸다. 그 위로는 탑의 전체적인 균형 때문인지 아니면 중간에 유실되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중대석(中臺石)을 소실한 채 바로 양련좌대석(仰蓮坐臺石)을 올렸다. 탑신 역시 팔각으로 전면에는 「慈眞圓悟國師淸照塔」이라 음각으로 명기되었으며 그 후면은 범자(梵字)가 새겨져 있다. 통식(通式)의 탑신에 비해 높고 세장(細長)한 편으로 신라하



그림 2 아도 대화상 진영

대에 대두된 8각원당형 부도의 섬세함이나 특출한 조각수법(彫刻手法)은 나타나지 않으며 또 석질이 달라 후보(後補)한 듯한 느낌이 든다. 옥개석은 좁고 두꺼운 팔각으로 치마 밑은 수평인데 그 안에 몇 줄의 원형 음각의 띠를 돌렸다. 또한 옥상(屋上)은 기왓골이 있고 경사가 급하며 우동(隅棟)을 내려와 전각(轉角)에서 밋밋한 반전을 보였다. 상륜부에는 복발(覆鉢)이 있고 그 위로 구형석재 두 개가 보주(寶珠)로 올려져 있는데 이것도 뒤에 후보한 것이 아닌가 한다.

자진원오국사야말로 대원사의 사격(寺格)을 짐작할 수 있는 고려 후기 송광사의 큰스님이다. 그는 법휘(法諱; 불교 이름)가 천영(天英, 1215-1286, 고종 2-충렬왕 12)으로 고려 후기 조계산 송광사의 16국사 중 제5세로서 송광사는 물론 당시 고려사회를 이끌었던 최씨 무인정권 집정자(執政者)들과 연결된 영향력이 막강한 승려였다.

그는 속성(俗姓)이 양씨(梁氏), 호는 충경(冲鏡). 남원을 본관으로 한택춘(宅椿)의 아들이다. 어릴 때부터 신동으로 불릴 정도로 자질이 뛰어났다고 한다. 1230년(고종 17) 수선사 제2세인 진각국사(眞覺國師) 혜심(惠諱, 1178-1234) 밑에서 득도하였다. 3년 뒤에는 담선법회(談禪法

會)에 임하여 좌원(座元)이 되었으며, 1236년 선선(禪選)의 중상상과(中上上科)에 급제하였다. 그리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 수선사(修禪社) 제3세인 청진국사(淸眞國師) 몽여(夢如, ?-1252)의 교화를 받고, 나아가 제4세인 진명국사(眞明國師) 혼원(混元, 1191-1271)을 스승으로 삼았다. 1246년 주국(柱國) 최우(崔瑀)가 선원사(禪源社)를 만들었을 때 그 자리에 참석하여 최우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그 뒤 삼중대사(三重大師)가 되어 단속사(斷俗寺)에 있을 때인 1249년 최우가 창건한 창복사(昌福寺)의 주맹(主盟)이 되었고, 이듬해에는 선원사의 법주(法主)가 됨과 함께 보제사(普濟寺)와 구산선문(九山禪門)의 주맹이 되었다. 1256년 조계산 수선사의 제5세가 되어 입적 직전까지 이곳에서 보내며 종풍(宗風)을 크게 떨쳤다. 조계산에 주석하는 동안 고려왕실에서는 고종·원종·충렬왕 등 세 임금이 교체되었으나, 왕실에서의 그에 대한 존경은 변함이 없었다. 충렬왕은 서울로 초빙하여 가까이 모시고자 사신을 보내기도 하였으나 병을 핑계로 굳이 사양하였다. 언제나 너그럽고 두터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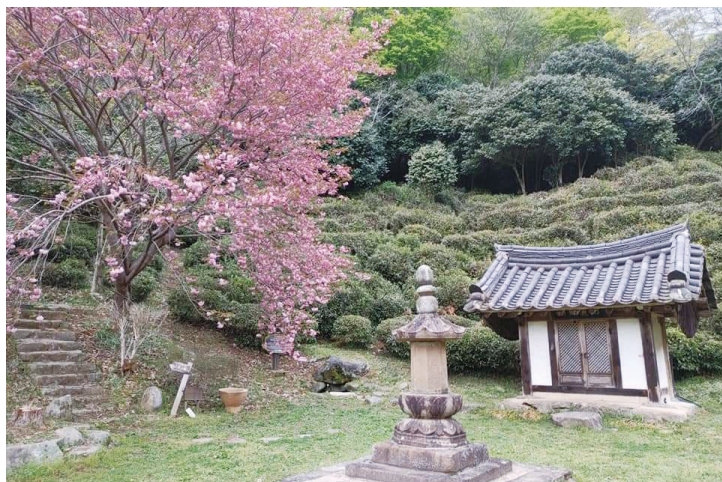


사진 2 자진원오국사 부도와 아도영각

자애(慈愛)로써 도제들을 교육하였으므로, 종실(宗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투어 그의 문하에 모여 들었다. 1286년(충렬왕 12) 2월에는 청을 받아 그가 일찍이 중창하였던 불대사(佛臺寺)에 갔다가 그곳에서 입적하였다. 충렬왕은 자진원오(慈眞圓悟)라는 시호와 정조(靜照)라는 탑호를 내렸다. 또 그 해 왕명으로 이익배(李益培)가 찬(撰)하고, 문인 굉묵(宏默)이 글씨를 쓴 비가 고흥 불대사(佛臺寺)에 세워졌다. 그러나 지금은 비문만 전할 뿐 비는 전하여지지 않는다. 제자에는 굉묵(宏默)·충지(冲止)·명우(明友)·굉소(宏紹)·신화(神化)·신정(神定)·만항(萬恒) 등 이름 높은 자들이 많았다. 충지는 그의 뒤를 이어 조계산의 제6세가 되었고, 또 만항은 제10세로 활동하였던 인물이며, 명우는 그의 행록을 찬하였다.

천영이 55세 때 대원사를 크게 중창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선수행과 정토신앙을 함께하는 선정쌍수(禪淨雙修)의 근본도량으로 사세(寺勢)를 넓히었다. 이 시기에 산의 명칭이 증봉산에서 천봉산으로, 절의 이름도 죽원사에서 대원사로 바뀌었다고 한다. 이 때 『선문염송(禪門拈頌)』을 대원사에서 판각하여 참선교재로 널리 사용했으나 여순항쟁의 여파로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전각과 함께 불타고 말았다. 대원사판 『禪門拈頌』의 판각본은 현재 서울대 규장각과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선문염송』은 고려 후기 수선사 제2세 진각혜심(眞覺惠諶)이 선종의 화두 1,125칙에 염과 찬송을 붙인 불교서로 공안집이다. 30권 목판본으로, 저자는 문인 진훈(眞訓)과 함께 선문공안 1,125칙(則)을 불경 또는 조사(祖師)의 어록에서 발췌한 다음 그에 대한 강령의 요지를 제시한 염(拈)과 찬송을 붙여 이 책을 완성하였다. 내용은 제1권에는 석가모니불에 대한 30가지 화제를 수록하였고, 제2권에는 석가모니 직계제자들의 화제 41개를 수록하였다. 제3권에는 여러 불경에 실린 화제와 조사에 대한 화제 32개를 수록하였고, 제4권에는 제6조 혜능(慧能)부터 혜충국

사(慧忠國師)까지의 화제 33개를 수록하였다. 제5권부터는 중국 선종의 오종칠가(五宗七家)의 고승들이 남긴 법문 가운데 화제가 될 만한 것들을 모으고, 그 화제 밑에 염·송·법어 등을 채집하여 수록하였다. 이 책은 일찍부터 우리나라 선문의 기본학습서로 채택되어 선종의 승려들은 반드시 이를 공부하였고, 선종선(禪宗選)에서도 이 책에 대한 공부는 반드시 점검하도록 되어 있었다. 초간본은 남아 있지 않으며, 몽고의 전란으로 초판이 불탄 뒤 1244년(고종 31)에 대장도감(大藏都監)남해분사(南海分司)에서 개판하였다. 그런데 이 때 새로이 347칙을 더하여 1,472칙을 수록하였다고 한다. 그 뒤 조선시대에도 여러 차례 개판되어 현재는 1568년(선조 1)의 법흥산 법흥사(法興寺) 간행본과 1634년(인조 12)의 수청산 용복사판(龍腹寺板), 1636년의 천봉산 대원사(大原寺) 개판본, 1682년의 대원사 간행본, 1707년(숙종 33)의 팔영산 능가사판(楞伽寺板) 등이 있다. 이 책에 대한 우리나라 고승의 주석서로는 각운(覺雲)의 『선문염송설화(禪門拈頌說話)』 30권, 일연(一然)의 『선문염송사원(禪門拈頌事苑)』 30권, 유일(有一)의 『선문염송간병(禪門拈頌看柄)』 1권, 의점(義沾)의 『선문염송기(禪門拈頌記)』 1권, 공선(巨璇)의 『선문염송사기(禪門拈頌私記)』 5권 등이 저술되었다.

고려후기에 자진원오국사 천영이 대원사에 주석하여 선정쌍수(禪定雙修)의 근본도량(根本道場)으로 삼으면서 사찰의 면모가 새롭게 되었다. 그는 진각혜심의 『선문염송(禪門拈頌)』에 바탕을 둔 간화선(看話禪)을 고양(高揚)한 선승(禪僧)이었다. 고려후기의 불교 수행전통을 계승한 대원사는 조선후기 1636년에도 천봉산 대원사 개판본으로 『선문염송(禪門拈頌)』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대원사는 조선후기 1759년(영조 35)에 이르러 현정선사(玄淨禪師)의 발원으로 불사를 일으켜 극락전, 지장전, 나한전, 천불전, 사천왕문, 봉서루, 토성각, 선원을 지었으며, 상원암, 불출암, 호적암 등 12개 암자를 지닌 대가람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전한다.

1948-50년대에 여순항쟁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대원사는 극락전과 석조물 몇 점만 남기고 모두 불타버리는 비운을 맞게 되었다.

1990년 당시 주지 현장스님(현 대원사 주지로 재취임)을 중심으로 대원사 복원불사 추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이후에 선원, 요사, 일주문 등을 중심으로 복원이 시작되어 사찰의 면모가 크게 일신되었다. 1993-1994년 이후 매년 2회씩 태아령을 천도 봉행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김지장전을 건립하는 등 전통불교가 아닌, 외래적 요소를 수용해 새로운 불교적 모색을 하며 활로를 찾고 있다. 박물관과 템플스테이관을 활용해 일반 대중들에게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그러나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광사의 말사인 천봉산 대원사가 한국불교의 전통적 수행인 선정쌍수(禪定雙修)에 바탕을 두면서 팬데믹 이후의 미래사회를 여는 대전환의 전진기지가 되기를 염원하는 수행도량으로 거듭날 것을 염원해 본다. 그런 의미에서 최씨무인정권의 몰락과 원간섭기 이어지는 격동기를 수행자로서 살아간 대원사 자진원오곡사 천영 큰스님의 부도야말로 불교문화유산으로서만이 아닌 대안적(代案的) 문화컨텐츠로서 그 빛을 새롭게 발하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사진 3 템플스테이 운영 중인 대원사의 현장 스님

강진 백련사, 고려후기 8국사와 조선후기 8대사의 도량(道場)

강진 만덕산 백련사

강진 만덕산 백련사는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에 있는 사찰로 대한불교 조계종 제22교구본사 대흥사의 말사이다. 백련사의 본래 이름은 고려후기에는 백련사(白蓮社)였으며, 조선후기 19세기에는 만덕사(萬德寺)로 불리다가 지금은 백련사(白蓮寺)라고 칭한다.

백련사는 신라 하대에 창건되었다고 하나 확실하지 못하다. 1211년(고려 희종 7) 원묘국사(圓妙國師) 요세(了世)에 의해 중창되었다.

요세는 이보다 앞서 월생산(月生山, 지금의 월출산) 약사난야(藥師蘭若)에 살았는데, 탐진현(耽津縣, 지금의 강진)의 토호이자 불교신자 최표(崔彪)·최홍(崔弘) 형제와 이인천(李仁蘊) 등의 요청으로 백련사에 옮겨 살게 되었다. 요세는 그의 제자 원영(元營)·지담(之湛)·법안(法安) 등에게 건물 80여칸을 짓게 하였는데, 1216년(고려 고종3)에 이르러 낙성 법회를 갖게 되었다.

그 뒤 그는 1221년(고종 8)에 대방(帶方, 지금의 남원) 태수(太守) 복장한(卜章漢)의 요청으로 대방 관내에 제2의 백련사(白蓮社)를 개설하고 몇 년을 그곳에서 머무르게 되었다. 1223년(고종 10) 요세는 최표의 간청으로 강진 백련사(白蓮社)에 다시 돌아와 도량을 크게 일신하였다.

고려후기 백련결사와 8국사

고려후기 지눌이 조계산 송광사를 중심으로 정혜결사(定慧結社)를 이

끌고 있을 때, 거의 같은 시기에 상호 일정한 관련을 가지면서도 서로 다른 성격의 신앙결사로 원묘국사 요세가 만덕사 백련사(白蓮社)를 중심으로 백련결사(白蓮結社)를 제창하게 되었다. 백련결사는 지눌의 정혜결사에 맞서면서도 대각국사 의천의 천태종과도 성격이 다른 법화신앙을 내세우는 불교개혁운동이었다.

백련사의 개창자인 요세는 지눌의 수선사에 참여하였다가 사상적 입장의 차이로 지눌의 결을 떠나 1208년(희종 4)에 월출산 약사난야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곳에서 그는 조계선(曹溪禪)에서 천태교관(天台敎觀)으로 되돌아갈 결정적인 자각을 하게 되었다. 그 무렵에 그는 탐진현(강진)의 최표·최흥 형제, 이인천 등의 요청으로 만덕산에 옮겨 살게 되었다.

요세는 백련사를 중창하고 도량을 일신하여 이곳을 백련결사의 근본도량으로 삼았다. 이어서 그는 1232년(고종 19) 4월 8일 처음으로 보현도량(普賢道場)을 열어 법화삼매(法華三昧)와 정토왕생(淨土往生, 淨土求生)을 닦으며 천태의 법화삼매참의(法華三昧識儀)에 의해 오랫동안 걸친 법화참법을 실천하였다. 또한 요세는 1236년(고종 23)에 제자 진정천책(眞淨天頌)으로 하여금 「백련결사문(白蓮結社文)」을 짓게 하였는데, 이것은 보조지눌의 ‘권수정혜결사문’의 유포(1190)와 같은 불교사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백련결사는 요세가 만덕사에 보현도량을 개설한 고종 19년(1232)을 출발로 하여 동왕 23년(1236)에 “백련결사문”이 작성, 공포됨으로써 정식 출범하게 된 셈이다. 요세의 백련결사는 지눌의 정혜결사에 못지않게 성황을 이루었다. 그리하여 백련사의 보현도량에 대해 강화도의 최씨무인정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1237년 여름에 고종이 요세에게 선사의 칭호와 함께 세찬을 내리기도 하였고, 1240년 8월에 최이가 계환해 『묘법연화경』을 보현도량에서 조판하게 하면서 그 발문을 찬한 사실에서 백련사와 최이정권이 밀접한 유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백련결사에 참여한 사회계층은 보현도량 개창 이전에는 강진의 지방

토호 및 지방 수령이었는데, 보현도량 개창 이후에는 최씨무인정권 집정자와 이들과 밀착된 중앙관직자 및 새로운 지식인층으로 대별된다. 요세는 득도한 제자가 38인, 개창한 가람이 5개소, 제명입사(題名入社)한 4부대중이 300여명, 멀리 인연을 맺은 사람은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대중적인 지지를 받았다.



사진 1 강진 백련사 동백나무 숲



사진 2 백련사 대웅보전

그런데 요세의 백련사는 지눌의 수선사와 상당히 다른 사상적 입장을 취하였다. 요세가 참회와 정도를 강조했다면, 지눌은 지혜와 점오(漸悟)를 강조하였던 것이다. 양자의 사상적 입장의 차이는 교화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중생의 근기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시사하는 것이었다. 요세는 교화의 대상으로 “죄의 업장이 깊고 두터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탈할 수 없는 나약한 범부”를 의식하였던 것에 비해, 지눌은 “최소한 지혜력 정도를 가진 스스로 발심할 수 있는 뛰어난 근기를 지닌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던 것이다. 요세의 주법(主法)을 계승한 백련사 제2세는 천인이었다. 천인은 요세의 불교사상을 계승하였는데, 그는 법화사상을 기본으로 하여 정토관을 통해서 그의 불교관을 표방했다. 즉 그는 보현도량을 개칭하여 법화사상과 정토신앙의 융합을 이루었던 것이다.

천인의 보현도량과 최씨무인정권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백련사는 보현도량의 개창에 최씨무인집권자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여겨지며 최씨무인정권은 대몽항쟁의 차원에서 지식인과 서민 대중을 규합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천인(天因)의 뒤를 이은 제3세는 원완이었다. 원완에 대해서는 천인의 문하라는 것만 알뿐 자료가 없어 그 활동과 사상을 알 수 없어 유감

스러울 뿐이다. 백련사 제4세는 진정국사(眞淨國師) 천책이었다. 그는 요세에게 출가하여 스승의 곁에서 백련결사에 적극적인 뒷받침을 하였다. 그는 고종 19년(1232)에 백련사에 보현도량이 개설되었을 때 <보현도량기시소>를 짓고 4년 뒤인 고종 23년(1236)에 스승의 명을 받들어 <백련결사문>을 짓기도 하였다. 천책은 요세, 천인 등과 마찬가지로



사진 3 백련사적비

법화사상을 기본으로 하여 실천문으로서 보현도량에서 주창한 정토관과 참법을 계승하여 서민불교를 표방하였다. 또한 그가 불교의 입장에서 유, 불의 근원을 동일하게 이해하였던 점은 앞으로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백련사 제4세 진정천책 이후 제5세부터는 법맥상에 혼돈이 보이고 있고, 또한 백련결사의 성격에 변질을 가져오게 되었다. 『만덕사지』는 백련사의 주법자를



사진 4 백련사 원구형 부도

1세 圓妙了世 - 제2세 靜明天因 - 제3세 圓安 - 제4세 眞淨天政 - 제5세 圓照力(而安) - 제6세 圓慧 - 제7세 眞鑑無畏(丁午) - 제8세 牧庵無畏

로 보고 8국사설(國師說)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6세 원혜와 7세 무외정오가 개경의 묘연사에 진출한 뒤에도 5세 원조이안이 생존해 있었고, 2인의 무외를 설정한 것도 잘못이다. 따라서 현존자료로 확인된 백련사 주법자는,

1세 원묘요세 - 2세 정명천인 - 3세 원완 - 4세 진정천책 - 원혜(대수미상) - 11세 무외정오 - 정조이안(대수미상)

으로 파악된다.

한편 백련사의 원혜와 무외정오가 충렬왕의 원찰 개경 묘연사에 진출하게 되었다. 이로써 백련사의 사세가 중앙에까지 확대되었지만, 중앙 왕실과의 결합으로 묘연사계 천태종은 귀족불교로 변질되기에 이르렀

다. 묘연사계 천태종이 부원세력인 귀족불교로 변질되어질 무렵 이것을 비판하면서 진정천책의 계승자인 무기운묵(無寄雲默)이 백련사 초기의 열렬한 정토신앙에 바탕을 둔 서민불교적인 새로운 불교결사운동을 일으켰다.

운묵 이후 백련결사가 어떻게 변모되었는지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다. 여말선초에 백련사는 왜구의 노략질로 폐사가 되다시피 하였다.

조선초기 행호 대선사와 효령대군의 백련사 중창

조선초기에 들어와서도 백련사는 왜구의 침략으로 사찰이 많이 훼손되었으나 그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백련사는 1426년(세종 8년) 천태종 승려 행호(行乎)가 크게 중창하였다. 백련사가 황폐해진 것을 천태영수(天台領袖) 도대선사(都大禪師) 행호가 보고 탄식하며 옛 모양으로 회복하고자 하였다. 그는 임금의 수명과 나라의 복을 비는 수군복국(壽君福國)의 서원을 발원하여 종제(從弟) 신담(信湛) 등에게 부탁하여 여러 단월에게 시주를 권유하게 하였다. 한편으로 신담을 효령대군에게 보내 편지로 대공덕주가 되어줄 것을 청하였다. 효령대군은 흔연스럽게 재정을 시주하고 기력을 내주었으며, 여러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모여들게 하였다. 특히 장흥부인(長興府人) 전도관좌랑(前都官佐郎) 조수(曹隨)와 강진현(康津縣) 안일호장(安逸戶長) 강습(姜濕)이 가장 선두가 되었다. 이 중창불사는 1430년 시작하여 1436년 준공되었는데, 이로써 불전(佛殿)과 승사(僧舍)가 옛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다. 효령대군은 양위(讓位)하고 사찰을 유람할 때 백련사에 8년 동안 머물렀는데, 이때 답토(畓土) 54두(斗) 2승락(升落)을 기부하기도 하였다.

조선후기 백련사의 8대사

조선후기에 들어서는 백련사 승려 단기가 본사의 실적(實跡)이 오래되어 없어져 버릴 것을 염려하여 조종저(趙宗著)에게 돌에 새길 간석지문(刊石之文)을 청해 백련사사적비(白蓮寺事蹟碑)를 1781년에 건립하였다.

천계(天啓, 1621-1627, 광해군 13-인조 5)) 말년에 취여삼우(醉如三愚)가 법회를 개설하여 옛날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취여는 청허휴정의 제자인 소요태능의 적손(適孫)으로 백련사의 맹주(盟主)가 되었다. 조선후기에 백련사에서 8대사(大師)가 배출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조선후기 백련사의 八大師

淸虛休靜-❶逍遙太能-❷海運敬悅-❸翠如三愚-❹華岳文信-❺雪峰懷淨-❻松坡覺喧-❼晶岩卽圓-❽蓮坡惠藏

백련사의 8대사는 소요태능 계통의 전법제자로 이루어진 반면, 인근 해남의 대흥사의 13대사는 편양언기의 전법제자가 대다수였다. 백련사 8대사 가운데 취여삼우(翠如三愚), 화악문신(華岳文信), 설봉회정(雪峰懷淨), 연파혜장(蓮坡惠藏)은 대흥사의 13대종사(大宗師)와 13대강사(大講師)에도 포함되고 있다. 이것은 양 사찰의 승려가 상호교류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❶ 소요태능(逍遙太能, 1562-1649)은 담양 출신이며, 성은 오씨(吳氏), 호는 소요(逍遙), 법명은 태능(太能), 시호는 혜감선사(慧鑑禪師)이다. 서산대사의 전법제자(傳法弟子)이며, 소요파(逍遙派)의 개조(開祖)이다. 13세에 백양산(白羊山)의 경치에 감화 받아, 진대사(眞大師)로부터 구족계를 받고 출가하였다. 그 후, 속리산과 해인사 등지에서 부휴(浮休)에게 경률(經律)을 익혔는데, 부휴의 수백 명의 제자들 중, 충휘(沖徽)·응

상(應祥)과 더불어 법문(法門)의 삼걸이라 불릴 정도로 뛰어났다. 뒤에 묘향산으로 휴정을 찾아가 ‘조사서래의’(祖師西來意) 화두를 묻고 서로 문답한 뒤, 휴정의 의발(衣鉢)을 이어받았다. 1624년(인조 2) 남한산성의 서성(西城)을 보완하였으며, 지리산의 신흥사(神興寺)와 연곡사(燕谷寺)를 중건하였다.

1649년 11월 21일 법문과 임종계를 말하고 세속 나이 87세, 법랍 75세로 입적하였다. 사리를 연곡사·금산사(金山寺)·보개산(寶蓋山) 세 곳에 나누어 봉안하고 부도(浮屠)를 건립하였다. 그를 흠모한 효종은 1652년(효종 3) 혜감선사(慧鑑禪師)라는 시호를 내리고, 이경석에게 비명(碑銘)을 짓게 하고, 금산사에 비를 세우게 하였다.

태능은 선(禪)과 교종(敎)을 하나의 근원에서 파생한 두 가지 흐름으로 보는 전통적 견해를 취했다. 이는 스승인 서산대사와 일맥상통한다. 태능은 저서 《소요당집》(逍遙堂集)의 서문에서 서산대사의 뛰어난 제자들 중에 오직 자신만이 선지(禪旨)를 통달하였다고 하였다. 뛰어난 제자로 현변(懸辯), 계우(繼愚), 경열(敬悅), 학눌(學訥), 처우(處愚), 천해(天海), 극린(克璘), 광해(廣海) 등이 있으며, 그 밖에 소요파(逍遙派)로 불리는 수백 명의 제자들을 두었다.

❷ 해운경열(海運敬悅, 1580-1646)은 조선후기 소요태능으로부터 선법을 계승한 승려이다. 생애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1607년(선조 40) 청련 원철(靑蓮圓徹)이 해남 대둔사(大菴寺)에서 대회(大會)를 열었을 때 소요태능(逍遙太能)이 참석하였는데, 이때 그의 나이 28세로 태능으로부터 선법(禪法)을 이어받았다고 한다.

경열은 태능의 법맥을 이었고 호를 해운(海運)이라 하였다. 해운은 봉(鵬)새가 남쪽 바다로 옮겨간다는 의미이며, 이는 유유히 소요(逍遙)한다는 뜻으로 소요-해운의 전법 관계를 상징한다. 그리고 태능은 경열의 가슴 속에 있는 법해(法海)가 넓고 깊어서 예측하기 어렵고 글 속의 현

묘한 뜻은 헤아리기가 어렵다는 평을 하였다.

태능의 『소요당집(逍遙堂集)』에는 제자 경열에 대해 읊은 시와 계송이 수록되어 있다.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전법제자는 취여삼우(醉如三愚)이다.

❸ 취여삼우(翠如三愚, 1622-1634)는 조선후기 대흥사 13종사 가운데 1인으로 경열의 법맥을 계승한 승려이다. 성은 정씨(鄭氏). 강진(康津) 보암방(寶巖坊) 출신으로 어려서 출가하여 만덕산 백련사(白蓮寺)에서 승려가 되었다.

그 뒤 전국의 명산을 다니면서 불교를 비롯한 내외전(內外典)을 공부하였고, 해운 경열(海雲敬悅)의 법문을 듣고 크게 깨달아, 청허휴정(淸虛休靜)의 제자 소요 태능(逍遙太能)에서 경열로 전해진 소요파의 법맥을 이어받았다. 특히, 담론(談論)을 잘하여 듣는 이들을 모두 설복시켰다고 한다.

대흥사 상원루(上院樓)에서 『화엄경』의 종지(宗旨)를 강설했을 때는 청중이 수백 명이 넘었다. 그때 한 농부가 누각 아래에서 쉬다가 법문을 엿듣고 깨달은 바가 있어 제자로 삼아줄 것을 간청하였다. 그의 가르침에 따라 농부는 과거의 업장(業障)을 참회하고 화엄(華嚴)의 묘지(妙旨)를 얻게 되었다. 삼우는 그를 전법제자(傳法弟子)로 삼고 의발(衣鉢)을 전하였는데, 그가 곧 화악문신(華岳文信)이다.

이것은 중국의 오조홍인(五祖弘忍)이 나무꾼이었던 육조혜능(六祖慧能)에게 자신의 의발을 전한 고사(故事)와 비견되기도 한다. 1684년 6월 5일 63세로 입적(入寂)하였다. 제자들은 그의 영정(影幀) 2분을 그려서, 백련사와 대흥사에 봉안하였고, 대제학 한치응(韓致應)이 쓴 비(碑)는 대흥사에 있다.

❹ 화악문신(華岳文信, 1629-1707)은 조선후기 승려로 소요파 취여삼우(醉如三愚)의 제자이며 대둔사(大菴寺: 현재 대흥사) 13대 종사(宗

師) 중 4대 종사이다. 성은 김씨(金氏), 호는 화악(華岳). 해남 화산(華山) 출신으로 어렸을 때 출가하여 대둔사 고권(顧權)의 제자가 되었다.

그러나 배운 것이 없어서 경전을 공부하지 못하고 농사일을 하면서 지냈다. 어느 날 대둔사 상원루(上院樓) 아래에서 쉬고 있는데 누각 위에서 취여(醉如)가 강론하는 『화엄경(華嚴經)』의 종지(宗旨)를 듣고 홀연히 깨달은 바가 있었다.

그 뒤 취여의 가르침을 따라 화엄을 배웠으며, 솔방울을 주워 불을 밝히고 온종일을 독경하며 3년을 공부한 뒤 취여로부터 소요파(逍遙派) 법맥을 전수받았다. 그때부터 전국 각지의 고명한 선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지도를 받다가 다시 대둔사로 돌아와서 취여의 뒤를 이어 후학들을 지도하였다.

그의 설법이 있을 때면 언제나 승속(僧俗) 수백 명이 참여하였다. 그때 묘향산에 머물렀던 편양파(鞭羊派) 월저도안(月渚道安)이 대둔사로 찾아왔다. 그들은 함께 선지(禪旨)를 담론하고 『화엄경』의 묘의(妙義)를 겨루어 서로의 도력을 인정하였다.

그때 월저가 능히 대중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간파한 문신은 제자와 학인들을 모두 월저에게 위탁하고 뒷방으로 물러나 두문불출하고 면벽(面壁) 참선하였다.

그 뒤 월저는 묘향산으로 돌아가서 문도들에게, “나는 남방에서 육신보살(肉身菩薩)을 보았다.”고 하며 화악문신의 도력을 널리 알렸다. 나이가 79세로 죽었으며, 다비(荼毘)한 뒤 사리(舍利) 2과(顆)를 얻어 대둔사에 탑과 비를 세웠다. 문인으로는 설봉 회정(雪峰懷淨)·벽하 대우(碧霞大愚) 등 20여 명이 있다.

⑤ 雪峰懷淨(1678-1738)은 영암 출신으로 문신(文信)의 법을 이은 후경전의 연구와 논리적 분석과 증명에 능했던 승려이다.

성은 조씨(曹氏). 자는 윤중(允中), 호는 설봉(雪峰). 영암 출신으로 어

머니 김씨는 살생을 싫어하고 다른 사람이나 자기나 차별을 두지 않는
인자한 성품이었다. 신인(神人)이 나타나 명주(明珠) 한 개를 주는 태몽
이 있었다.

9세 때 달마산(達磨山) 희명장로(熙明長老)의 권유로 입산하였고, 16
세에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다. 그 뒤 문신(文信)에게 경론(經論)을 배
우고 그 법(法)을 이었다. 여러 경전을 연구하여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증명하는 것이 능하여 남방의 모든 승려들은 그를 선림종주(禪林宗主)
라고 불렀다.

평소의 생활 가운데서도 허례허식을 배제하여 입고 있는 장삼이 남루
하게 떨어져도 깎지 않았으며, 머리를 깎지 않아 더벅머리가 되기도 하
였다. 검소하고 청빈하기 이를 데 없어 누더기 옷과 밥그릇이 소지물의
전부였다고 한다. 만년에는 해도(海島)에 들어가 야은(野隱)이라는 초
암(草庵)을 짓고 홀로 살았다.

“뜬 구름 오는 곳 없고 가는 곳 또한 자취가 없네. 고요히 바라보니 구
름만 오고가고, 이제는 다만 한 허공뿐일세.”라는 임종계를 남기고 6월
8일 입적하였다. 법을 이은 제자로 각현(覺喧) 등 16명이 있다. 다비하
여 사리 1과와 영주(靈珠) 1매를 얻어 미황사(美黃寺)에 탑을 세웠다.
김진상(金鎭商)이 찬(撰)한 비가 있다.

⑥ 松坡覺喧(?-?)은 화악문신의 법손(法孫)이자 설봉회정의 제자인
데, 정암즉원에게 사집과 사교를 가르쳤다고 한다. 기록이 없어 자세
히 알 수 없다.

⑦ 정암즉원 晶岩卽圓(1738-1794)은 영암 출신으로 미황사 등에서
활동한 승려이다.

성은 김씨. 자는 이우(離隅), 호는 정암(晶巖). 영암출신으로 3세에 어
머니를 여의고, 미황사(美黃寺)의 재심(再心)에 의탁하여 자랐다. 16세

에 출가하여 각훤(覺暄)으로부터 사집(四集)과 사교(四敎), 유일(有一)로부터는 교리를 배웠으며, 30세에 송파(松坡)의 법을 이어받았다.

회정(懷淨)의 문하에서 참선하였고, 1794년 궁복도(弓福島)의 한 암자에서 나이 56세, 법랍 41세로 입적하였다. 대중을 거느리고 경을 설하는 한편,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항상 보시에 힘썼다. 어느 날 거지가 왔는데, 이가 많은 것을 싫어하여 사람들이 문밖으로 쫓아내었으나, 그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같은 이불 속에서 잠을 잔 일화는 널리 알려져 있다.

⑧ 蓮坡惠藏(1772-1811)은 성은 김씨(金氏). 자는 무진(無盡), 호는 연파(蓮坡) 또는 아암(兒庵). 속명은 팔득(八得). 혜장(惠藏)은 법명이다. 해남 출신으로 어려서 출가하여 해남 대둔사(大菴寺)의 월송화상(月松和尚)으로부터 구족계를 받았다.

그 뒤 춘계(春溪)와 천묵(天默)으로부터 내전과 외전을 배웠는데, 총명하여 불경은 물론 세속의 학문까지 통달하였으므로 그의 명성은 승도들 사이에 자자하였다. 그 뒤 당대의 대강사인 유일(有一)과 정일(鼎駟)로부터 불교공부를 계속하였다.

27세 때 정암(晶巖)의 밑에서 선리를 터득하여 문신(文信)의 적손(嫡孫)이 되었다. 30세 때 두륜대회(頭輪大會: 두륜산내의 불교강회)를 주도하였음을 보면, 그 나이에 선(禪)·교(敎) 양종의 거목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801년(순조 1) 전라도 강진에 유배된 정약용(丁若鏞)과 깊은 교우관계를 맺게 되었다.

정약용은 그의 비명(碑銘)에서, “『논어』 또는 율령(律呂)·성리(性理)의 깊은 뜻을 잘 알고 있어 유학의 대가나 다름없었다.”고 칭찬하였다. 그는 특히 『수능엄경(首楞嚴經)』과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을 가장 잘 하였다.

35세 때부터 시주(詩酒)를 즐기다가 1811년 가을, 병을 얻어 두륜산

(頭輪山) 북암(北庵)에서 입적하였다. 제자에 색성(穢性)·자굉(慈宏)·응언(應彦)·법훈(法訓) 등이 있었으며, 모두 불교계의 거장이었다. 저서에는 『아암집』 3권이 있다.

조선후기 백련사의 불교문화유산

조선후기에도 백련사는 몇 차례 중수되었다. 효종대(1650-1659)에는 현오(玄悟)가 서원(西院)의 건물을 중수하였다. 또한 영조 37년(1761)에 승당에서 불이 일어나 불전, 요사채 수 백칸이 불타 버렸는데, 그다음 해에 원담, 윤철 등이 별좌(別座)가 되어 사찰을 중건했다. 이때 공이 있는 승려로 가선대부 지정(智正), 주지 혜철, 봉관(鵬寬) 등,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지방관으로 도운 사람은 강진현감 허휘, 병마절도사 홍약수, 수군절도사 신사암·신광익이었고, 서울에서 도운 사람은 홍문관 교리 신사운 등 여러 사람이었다.

백련사 대웅전에 모셔진 목조 삼존불상은 조선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대웅전 본존불 후벽에 걸린 영산회상도는 숙종 31년(1705)에 제작된 것이고, 대웅전 좌측 벽에 걸린 삼장보살도는 영조 49년(1773)에 조성되었다.

응진전 앞 부도나 명부전 앞 춘파당 부도는 조선후기의 작품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백련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졌던 승려의 부도로 보인다. 경내 동백숲 속에 부도가 4기 있는데, 이 가운데 월인당(月印堂) 부도는 대사 총신(聰信)의 묘탑(墓塔)으로 순조 4년(1804)에 건립되었다. 월인총신은 건륭대(乾隆代, 1736-1795)의 승려로 본래 미황사의 승려였다. 백련사에 머물렀을 때 글씨를 잘 쓴다는 선서(善書)의 이름을 얻었다.

융희(隆熙) 2년(1908) 서울에 거주하는 효령대군의 자손 이정재(李貞宰)가 효령대군이 절에 기부했던 답토 54두 2승락을 되돌려 가져가 버렸

다. 이리하여 백련사는 사찰의 유지가 대단히 어렵게 되었다고 한다.

『만덕사지(萬德寺志)』는 6권 2책으로 된 백련사 사적기이다. 그 편집은 다산 정약용의 지도를 받아 아암혜장의 제자와 다산의 제자가 편찬한 것으로 편찬연대는 1817년을 전후로 한 시기로 보인다. 만덕사지의 편찬에 다산은 모든 감정을 맡았고 학림(鶴林) 이청(李晴)이 권1·3의 자료 편집을 맡았다. 기어자굉(騎魚慈宏)이 권1·2·3과 권6을 자료에 따라 엮었으며 권4의 자료를 모았다. 제경응언은 권4·6을 교정하였고, 권5는 백하근학(白下謹學)이 엮었고, 별악승찬(鰲岳勝粲)이 교정하였다.

『만덕사지』의 내용은, 권1과 권2는 고려시대 백련사에 주석한 8국사의 열전이며, 권3은 주로 고려시대 백련사와 인연이 맺어졌던 인물들의 글이 실려 있으며, 권5는 사원규모 및 중수에 대한 기록이고, 권6은 백련사 승려 무외의 천태종 관계 논소(論疏)를 모은 것이다.

『만덕사지』는 조선후기 실학의 실증적인 방법의 영향을 받아 편찬된 것이다. 그래서인지 사적기에 흔히 보이는 설화적인 사찰연기설화가 빠져 있으며, 또한 사원경제에 관한 자료 역시 그러하다.

『만덕사지』는 조선후기 유불상교(儒佛相交)의 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덕사와 대흥사에서 배출된 학승들이 상호 교류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다산이 만덕사(백련사)와 인연을 맺게 됨으로써 조선후기 실학사상과 불교사상이 상호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호남학 산책
불가별전
호남 불교의 재발견

인쇄 2022.10.27
발행 2022.10.31

저자 이계표
발행인 천득염
발행처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주소 62383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53-27
전화 062-603-9600
팩스 062-941-6705
홈페이지 <https://www.hiks.or.kr>

편집·제작 (주)스케치북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125번길 7-4
T 062-714-1776 E sketchboook@naver.com

비매품/무료
ISBN 979-11-90608-42-8
ISBN 979-11-90608-37-4 (세트)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2022
이 책의 저작권은 한국학호남진흥원과 저자에게 있습니다.